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18호 【루계 제25361호】 주체105(2016)년 8월 5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축전을 보내여온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 라울 까스트로 루쓰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꾸바공화국 내각 수상, 분냥 워라쩬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바샤르 알 아싸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쩐 다이 땅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 막키 쌀 세네갈공화국 대통령, 오비앙 느게마 므바쏘고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 데니 싸쑤 느게쏘 몽고공화국 대통령, 죠제프 까빌라 까방게 몽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아브델아지즈 부떼플리까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요웨리 카구타 무쎄베니 우간다공화국 대통령인 우간다전국항쟁운동 위원장, 아브둘파타흐 알 씨씨 에집트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답전들에서 열렬한 축하와 축원을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시였다.

본사기자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리비아준비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리비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아흐마드 무함마드 알 쿨레이비가 선출되였다.

* * *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브라질준비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정일평도자회고 브라질위원회 위원장 아벨리누 레베이루가 선출되였다.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대화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의 복리를 위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는 우리 나라의 자랑찬 현실을 목격한 외국인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로씨아련방풍산당대표단 단장 까즈베크 따이싸에브는 과학기술전당을 참관한 소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과학기술전당이 짧은 기간에 이렇듯 웅장화려하게 일떠섰다는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나라들마다 많은 도시관들이 있지만 평범한 근로대중이 마음껏 과학기술을 습득할수 있는 이처럼 훌륭한 과학의 전당은 세계 그 어데에도 없을것이다.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위대한 나라 사회주의조선에서만 이처럼 훌륭한 전당을 건설할수 있다.

베루근로자총련맹대표단 단원 호르헤 페데리꼬 가르씨아는 사회주의조선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대화원이라고 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하늘높이 솟아오른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현대적인 대중봉사기지들에서 사회주의문명을 향유하는 평범한 근로자들의 기쁨넘친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근로인민들에게 행복하고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더 많은 사회적혜택이 그들에게 차례지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조치를 다 취하고있다.

인간의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을 국가정책으로 하고있는 조선은 모든 나라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베루근로자총련맹대표단 단원 베르메루아 메히아 에체바리아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녀성들과 어린이들이 사회적차별과 각종 폭력의 희생물로 되고있지만 조선에서는 나라의 꽃,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고있다.

평양산원,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한 현대적인 병원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 그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령도자의 품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조선의 그 어디에서나 차넘치고있다.

조선의 경이적인 현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울려나오는 련대성의 목소리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세계 각국에서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나왔다.

로므니아 새 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이딸리아공산주의자들의 조직 조정자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담화와 글들을 통하여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준렬히 단죄하였으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성원을 표명하였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시기장은 미국은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들을 해마다 벌려놓으면서 조선의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신봉자들은 평화애호인민들과 함께 사회주의조선을 질식시키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규탄한다.

조선반도문제해결의 근본열쇠는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우선 남조선에 배비한 핵무기들을 철수시켜야 한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끊임없이 핵으로 위협하면서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있다.

진보적인류는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이 일어나는것을 원치 않으며 조선이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바라고있다.

전쟁을 막고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조선인민에게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그루빠,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콩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베루전국어린이건강협회 근로자통일로조 등 여러 단체들은 짧고 짧은 분노와 열적의 기세로 백년숙적 미제와의 최후의 판가리결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는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는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은 걷음마다 분쇄되였다.

조선인민은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철수시키기 위해 견결히 투쟁하고있다. 또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해 적극 투쟁하고있다.

우리는 조선의 벗들, 주체사상, 선군사상신봉자들의 련대적인 투쟁구호에 목소리를 합친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당장 나가라!

모든 반공화국전쟁연습을 중지하라!

미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

로씨야, 프랑스, 뽈스까, 방글라데슈, 말레이시아, 수리아, 인도네시아, 에집트, 기네, 베루 등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행사들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세계평화리사회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에서 토론한 세계평화리사회 집행서기, 네팔평화 및 련대성리사회 위원장을 비롯한 인사들은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평화파괴의 주범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남조선에서 침략무력을 철수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영국신공산당,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 인사들과 각계층 군중도 반미시위에 떨쳐나섰다.

시위자들은 영국주재 미국대사관앞에서 《미제는 남조선에서 물러가라!》, 《양키는 제 집으로 돌아가라!》, 《조선은 하나다!》 등의 구호를 웨치며 보행자들에게 미제가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반인륜적범죄들을 폭로하는 선전물들을 나누어주었다.

꾸바의 아바나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개막행사에서 조선통일지지 꾸바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1950년 6월 25일 미제가 일으킨 처절한 조선전쟁에 대하여 잊지 않고있다.

그러나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떨쳐나선 조선의 군대와 인민앞에 미제는 무릎을 꿇고말았다.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수호하려는 조선인민에 의해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는 여지없이 깨여졌으며 세계는 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이 도발한 전쟁에서 참패당하는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조선의 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네팔의 정당, 사회 및 친선단체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련합토론회연단에 나선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네팔인민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굳은 지지성원을 보낸다고 하면서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은 미국의 반공화국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에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활동을 적극 벌려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 련방비서국 총조정자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조선은 지난 조선전쟁에서 미제에게 심대한 참패를 안긴 그 기상, 그 기백으로 반미대결전에서 백승만을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의 령도따라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는것은 우리들의 의무이다.

우리는 미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김정은원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부강조국의 만년재부 금야강군민발전소 조업식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천만군민이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높이 충정의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대규모의 금야강군민발전소가 나라의 동해지구에 훌륭히 일떠섰다.

금야강군민발전소는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애국헌신의 숭고한 결정체이며 당과 수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며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안아온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 부강조국의 만년재부이다.

나라의 대동맥기지인 금야강군민발전소가 성과적으로 조업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선결조건의 하나인 전력문제를 푸는데서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으며 금야강일대의 큰물피해를 막고 관개용수를 넉넉히 보장하여 농업생산을 늘일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로동당시대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금야강군민발전소 조업식이 3일에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조업식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업식장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사회주의강국건설》, 《자강력제일주의》 등의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동지와 김덕훈 내각부총리, 김만수 전력공업상, 동정호 건설건재공업상, 김성일 함경남도당위원회 위원장, 김봉영 함경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인민군 군인들, 건설자들, 발전소종업원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조업식은 시작되였다.

조업사를 오수용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금야강군민발전소가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완공되여 조업식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금야강군민발전소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남기신 또 하나의 애국유산이며 조국의 만년재부이라고 하면서 그는 일찌기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발전소건설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심차례의 료시를 주시면서 대규모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금야강을 행복의 강, 보배강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시기 위해 금야강군민발전소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여러차례 바람세찬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였으며 설계로부터 건설력량편성, 기계설비, 건설자재보장을 비롯하여 언제공사를 성과적으로 벌리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을 창조한 군인건설자들을 발전소건설장에 불러주시여 군민이 힘을 합쳐 건설을 다그쳐 끝내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건설장을 찾으시여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몸소 건설자들과 기념촬영까지 해주시는 최상의 영광을 안겨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자력자강으로 비약하는 만리마시대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한 금야강군민발전소의 완공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심한 령도의 손길이 뜨겁게 깃들어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쥐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전소건설정형과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발전소조업준비를 원만히 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세심히 가르쳐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당의 구상과 결심은 곧 실천이고 승리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이면 지구도 든다는 철리를 심장깊이 간직한 군인건설자들과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건설자들, 도안의 돌격대원들은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온갖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방대한 저수능력을 가진 거창한 언제를 로동당시대의 위대한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우는 기적을 안아왔다고 말하였다.

함흥산업건설사업소와 함경남도송배전부, 설비조립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철탑건설, 대형발전설비들과 시설물의 조립과 설치 등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하여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적극 기여한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그는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룡성기계련합기업소, 함흥강철공장을 비롯한 련관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건설자들의 맹렬한 돌격전에 보조를 맞추어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였으며 중앙전력설계연구소의 설계가들은 실리있는 언제설계를 도입하여 발전소완공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말하였다.

금야강군민발전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발전소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을 안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로 뚫고나가면서 발전소정상운영과 기업소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으며 함경남도의 일군들과 인민들이 발전소건설 전기간 공사를 성심성의로 지원하는 아름다운 소행들을 수많이 발휘한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의 대진군을 가로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날뛰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자력자강의 거창한 창조대전,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짓부셔버리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만년재부를 보란듯이 일떠세운 군민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은 조국번영의 새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금야강군민발전소가 나라의 전력문제해결에 크게 이바지하는 대동력기지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서 조업하게 된것은 몸소 건설을 발기하시고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합니다.》

연설자는 함경남도의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같은 신념을 지니고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위하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금야강군민발전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전력공업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설비관리와 발전기정비보강사업을 짜고들며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발전설비의 효률을 높이고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전기를 원만히 생산보장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크나큰 긍지를 안고 전력생산을 늘이며 발전기실과 발전소구내, 주위환경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당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나라의 전력공업발전에서 자신들이 지닌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온갖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발전소언제를 쌓아올리던 투쟁정신과 본때로 단천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 및 중소형발전소건설에서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자강력제일주의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대담한 공격전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경제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옹위전을 과감히 벌리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만리마속도를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인민의 만복이 꽃펴나는 천하제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조업식은 끝났다.

조업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자력자강의 기념비로 웅장하게 솟아오른 금야강군민발전소를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수령님은 페허우에 자립의 억센 기둥을 세워주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준 전후복구건설

전후복구건설의 3년! 그것은 또 하나의 전쟁이였다.

전보적인류의 눈길이 참담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그 페허우에 우리 인민은 3년만에 기적의 창조물들을 꽉 채웠다.

미제를 타승한 강철의 령장이실뿐아니라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 3년기간에 우리 인민을 전후의 재더미우에 자립의 억센 기둥을 세우고 행복한 삶의 터전을 일떠세운 영웅적인민으로 키워주시였다.

우리 인민의 긍지로운 자력갱생사에서 전후복구건설의 3년은 조선사람의 본때를 온 세상에 과시한 력사적기간으로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력사를 쥐여짜면 자력갱생이라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조선사람의 본때.

이 말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체 인민을 복구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시며 많이 쓰신 표현이다.

주체42(1953)년 7월 28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승용차는 전승을 경축하는 저녁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가량으려고 대동강뚝길을 빠른 속도로 달렸다. 하지만 시내중심에 미처 이르지도 못했는데 평양의 하늘에는 축포가 터져올랐다.

전승의 축포!

승리한 영웅도시의 하늘에 높이도 올라 길길이 휘뿌려지는 아름다운 불보라는 조국해방전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신 강철의 령장께 드리는 영광의 불보라였다.

하건만 그 시각 우리 수령님께서는 새초가 무성한 대동강의 동뚝에서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축포가 오르는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전승의 그 불보라도 귀중하였다. 하지만 수령님께서는 전후복구건설에로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실 창조와 건설의 불이 더 귀중하시였다.

그 불을 위하여 이날 강남요업공장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모든것이 파괴되고 남은것은 재더미밖에 없지만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이 있는 한 복구건설에서도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것이 수령님의 신념이였고 의지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벽돌생산기지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며 강남에서 하루해를 다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시민들이 건너다보고 저 공장이 평양시를 복구건설하는 공장이라는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장에 불도 환하게 켜놓고 야간에도 계속 작업을 할수 있게 조건을 잘 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 이튿날 밤부터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수백개의 촉수높은 전등알들은 강남벌에 불야경을 펼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켜주신 강남의 불빛, 그것은 전후복구건설의 장엄한 대진군을 알리는 봉화였다.

그 불빛을 보며 전체 인민이 승리자의 기세드높이 복구건설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강남의 로동계급의 심장마다에 지펴주신 불씨를 소중히 안으시고 수령님께서는 다음날에는 황철, 그 다음날에는 수도의 방직공장건설장을 찾으시며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 복구건설의 거세찬 불길을 지펴올리시였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전쟁이 끝나면 마음놓고 푹 휴식하겠다고 하시였건만 전승의 축포가 오르기 전부터 복구건설의 길을 이어가신 우리 수령님.

이르는 곳마다에서 철의 의지와 인민에 대한 믿음을 담아 하시는 가르치심은 복구건설에서도 미국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는것이였고 그 실현을 위해 명확히 밝혀주신 방도는 바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이였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이야말로 조선의 강위력한 보검이였고 그 보검에 바로 조선사람의 본때가 있었다.

자력갱생의 보검을 틀어쥐고 조선은 １００년이 걸려도 일떠설수 없다던 미제의 면상을 후려갈긴것이 어찌 전후 ４０일만에 첫 쇠물을 뽑은 강선의 로동계급만이겠는가.

주체４２(１９５３)년 １０월 중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흥남비료공장 복구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얼마나 혹심하게 파괴되였던지 받을 옮겨놓을 자리도 없는 공장구내를 돌아보시면서 모든것을 다 우리 힘으로 해야 한다고 로동자들을 고무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장복구를 위한 방향과 방도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전쟁시기 흥남비료공장이 적비행기의 폭격을 받아 한주일동안이나 불탈 때 농민들이 땅을 치며 통곡한 사실을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농민들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풀어주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발전짐을 잘수 있겠는가고 절절히 호소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의 호소를 받들고 흥남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위력을 높이 떨치였다.

복구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2년만에 비료폭포를 마련한 흥남의 로동계급에게 우리의 로동계급은 전후복구건설에서도 조선로동계급의 본때를 보여주었다고 높이 치하해주신 우리 수령님.

단순히 먹고 입고 쓰고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기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수 없었다.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

전후 우리 수령님께서 이 불같은 호소를 하신 때로부터 복구건설의 성격은 단순히 경제건설만이 아닌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는 결사전으로 번지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흥남의 로동계급이 생산한 새하얀 비료를 두손으로 움켜쥐시고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곧 사회주의입니다.》** 라고 기쁨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전후복구건설로선은 이 땅에 사회주의의 봄계절을 불러오고있었다. 희망과 신심을 안겨준 강남의 불빛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인민의 마음속에서 자력갱생의 봉화로 타올랐고 사회주의에로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로 되였다.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는것도 힘들었지만 시련과 난관이 중중첩첩으로 쌓여있은것은 중공업부문이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핵심인것으로 하여 중공업에 대한 내외반동들의 방해책동이 가장 우심하게 나타났다.

복구건설은 첫해부터 눈부신 성과를 기록하고 두번째해인 주체４４(１９５５)년에도 줄기차게 전진하고있었다.

그해 １１월 중순 돌아보게 달라진 당시의 강선제강소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뚝우뚝 솟은 창조물들, 굴뚝마다에서 타래치는 연기를 보시며 여기에 오면 기운이 솟는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한해전 6월 당시의 황해제철소에서 첫 쇠물이 폭포처럼 쏟아질 때에도 힘이 솟고 신심이 생긴다고 자신의 뜨거운 심중을 터놓으신 수령님이시였다.

그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로선과 방침들은 어느것이나 다 독창적인 우리 식, 조선식이였다.

황철의 로동계급이 첫 쇠물을 뽑은지 한달후인 주체４３(１９５４)년 7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의 김책제철소복구를 현지에서 지도해주시였다.

지배인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기로 된 설비들이 언제 들어올지 막연하며 그대로 나가다가는 용광로가 어느때 가서 숨쉴수 있겠는지 가늠할수 없다는 사정을 그대로 수령님께 보고드리였다.

전후 원조의 이름밑에 가해지는 현대수정주의자들의 대국주의적압력과 경제적제재는 명백히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지 않는데 대한 로골적인 불만이였고 독창적인 우리 식, 자주적인 조선식에 대한 부정이였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단호한 어조로 남에게 의존하여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철을 제기일내에 생산할수 없으며 이 문제를 자체의 힘과 우리 기술자들의 힘으로 풀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떠나시면서도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인된 립장에서 자체의 머리로 사고하고 자체의 힘을 믿고 항상 일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가슴마다에 심어주신 자력갱생의 불씨는 무한한 창조의 지혜를 주고 불가능을 모르는 힘을 주었다.

김철의 로동계급은 자체의 힘으로 용광로를 일떠세웠으며 １９만t도 어렵다던 외아들용광로에서 ２７만t의 선철을 뽑아냈다.

그 시절에 쇠돌과 석탄이 좋고 전기가 풍족해서 생산에서 기적이 창조된것이 아니였다. 큰 나라를 쳐다보며 남의 힘, 남의 경험만을 절대시한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비난과 공격으로부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수령님을 결사보위하고 수령님의 뜻을 피와 살을 바쳐 결사관철하는 자력자강이 쇠물을 끓이였고 기적을 창조하였다. 자력갱생의 철저한 신봉자들은 강철기둥으로 우리 당의 자주로선을 굳건히 떠받들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곳 북방의 철의 기지에서도 사품치는 쇠물을 보시고 힘이 솟는다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당시 내각회의에서 황해제철소의 용광로복구문제를 놓고 종파사대주의자들과 기술자들사이에 격렬한 론쟁이 벌어졌을 때에도 회의를 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누가 뭐라든 애국심에 불타는 기술자들을 전적으로 지지해주시면서 우리 힘, 우리 기술로 황해제철소를 복구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게 하시였다.

후날 황철의 기술일군에게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때 동무에게서 큰 고무를 받았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전후 경제건설의 《１２１１고지》 황해제철소.

황철의 기술자들은 령도자를 받드는 순결한 량심과 애국심으로 사대와 교조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１２１１고지》를 끝까지 사수하였다.

자력자강으로 페허우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전후복구건설의 나날 우리 수령님께 힘과 고무를 드린 사람들이 어찌 강선과 황철, 김철의 로동계급과 기술자들뿐이였으랴.

전후의 페허우에 자주, 자립, 자위로 굳건한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배와 예속을 꿈꾸는 력사의 온갖 반동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었다.

모진 시련과 난관의 돌풍속에서 우리 인민을 결단코 자력자강에로 이끄신 우리 수령님은 진정 전세계가 경탄하여마지 않는 절세의 위인이시였다.

그때로부터 수십년후 일본주재 미국대사를 하던 사람은 자기의 론문에서 지금 미국사람들이 북조선도 유럽사회주의나라들처럼 무너질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북조선에서는 김일성주석이 １９５５년 １２월에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라는 연설을 한 때부터 모든것을 자기 식대로 해놓았기때문에 유럽사회주의나라들처럼 무너지지 않는다. …북조선에는 사대주의가 없기때문에… 라고 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주체공업을 창설해주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정말 우리 수령님은 선견지명을 지니신 혁명과 건설의 탁월한 령도자이시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처럼 어렵고 복잡하였던 전후복구건설의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인민의 모습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다고 하시며 밝게 웃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환한 모습에서 신심과 용기를 얻고 결사관철의 투쟁으로 수령님께 고무를 드린 우리 인민.

이것이 바로 자력자강의 위력이였다. 자력자강에서 자체의 힘이란 바로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 수령과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일심단결의 위력이 아니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자력자강으로 흥하고 부강할 조국의 휘황한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태양의 미소는 영원히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떠밀어주고있다.

본사기자 한 영 민

100년과 3년

100년과 3년, 이 수자를 외워보는 우리의 마음은 뜨겁다.

참혹한 파괴였다. 도시나 공장들은 지도우에나 남아있을뿐, 한그루의 카로수조차 변변한것이 없었던 황량한 페허였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폭탄을 퍼부었으면 미제는 １００년이 걸려도 조선은 다시 일떠서지 못할것이라고 떠벌이였겠는가.

１００년, 한세기를 뜻하는 이 수자에 바로 인류전쟁사에 기록된 수많은 전쟁들에도 비길데 없었던 조선전쟁의 참혹성과 파괴상이 어리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쟁이 남겨놓은 페허속에서 우리 나라가 이처럼 빨리 일떠설수 있은것은 바로 인민들의 위력한 힘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전후 우리 인민앞에 나선 복구건설은 또 한차례의 전쟁과 다름없는 시련과 고난의 길이였으며 전대미문의 초행길이였다.

이러한 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싶으시였다.

히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른새벽 어느날 서평양일대에로 나가신 일이 있었다.

승용차가 조차장근처에 이르렀을 때 어디선가 《와!》 하고 터치는 사람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현일인 카싱어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누구들인데 이 신새벽에 무슨 일을 하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늙은이가 어스름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알아뵙지 못하고 질러를 닦는 길이라고 대답하였다.

젊은이들이 없이 폐 집을 지어낼만한가고 다시 물으시는 우리 수령님께 그는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고 공장을 복구하는데 늙었다구 우리가 제 집이야 못 짓겠는가고 하며 한번 본때있게 벽돌집을 지어볼 마음이라고 자기의 속생각을 무람없이 터놓는것이였다.

미국놈들을 때려잡고 승리하니 있던 힘도 더 생긴다고, 이제는 빨리 나라를 일떠세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

위대한 수령님께서 키워주시고 절대적으로 믿으시는 우리 인민은 바로 이런 인민이였다.

모진 시련속에서도 주저앉은것이 아니라 남녀로소가 떨쳐나 자체의 힘으로 집도 짓고 나라도 일떠세워야 한다는 불굴의 신념과 랑만에 넘쳐있는 자강력의 소유자들이였다.

그날 필승의 신심에 넘쳐있는 인민들의 모습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힘이 생긴다고, 이런 인민이 있는데야 무엇인들 못하겠는가고 하시면서 전후복구건설의 승리를 확언하시였다.

못 잊을 력사의 그 새벽길로부터 전후복구건설의 나날 우리 수령님께서 주무신 시간은 하루에 2~3시간정도였다. 그 시간마저도 말리는 차안에서 아니면 집무실에서 사색을 이어가시며 잠간 쪽잠에 드시는 날이 대부분이였다. 전쟁시기와 마찬가지로 복구건설의 나날에도 전두에 서시여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며 만난시련을 헤쳐나가신 우리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는 곧 승리라는 철리를 심장으로 새겨안은 인민의 힘은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변시키는 기적을 낳았다.

미제가 떠벌인 １００년이 아니라 불과 3년만에 우리 인민은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전쟁전수준을 돌파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１００년을 3년으로 주름잡은 영웅조선의 본때, 우리 인민의 자강력을 보여주는 이 수자에는 자기 힘만을 믿고 일떠서는 인민의 힘은 이 세상 그 어떤 기적도 이루어낸다는 력사의 철리가 담겨져있다.

세상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한 우리 인민의 전후복구건설, 정녕 그것은 우리 인민의 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드놀지 않는 신념을 지니시고 이 땅우에 자력자강의 거세찬 폭풍을 휘몰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아오신 빛나는 승리이다.

본사기자 채 히 성

력사의 기적들이 이룩되던 나날에

미제와 싸워이긴 정신으로

주체４３(１９５４)년 4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희천의 한 기계공장을 찾으시였다.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짓부시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공작기계들을 만드느라 애쓰는 이곳 로동계급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계가 아무리 복잡해도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것인데 신비로울것은 없다고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지금은 기술수준도 어리고 경험도 없어서 어렵기는 하지만 미제와 싸워이긴 정신으로 이 공장을 훌륭한 공작기계들을 만들어내는 어머니공장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하신 우리 수령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작기계에서 기본인 선반을 훌륭하게 만들어 전국에 보내줄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시였다.

설계도면도 없이 공작기계를 만드느라 애로는 많았지만 이곳 로동계급은 미제와 싸워이긴 그 정신으로 온갖 난관을 박차고 전진하였다. 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다녀가신지 １９일만에 첫 선반을 만들어내게 되였다.

희천의 로동계급이 첫 선반을 차에 싣고 평양으로 떠려왔을 때 우리 수령님께서 그 얼마나 기뻐하시였던가.

보시오! 우리 조선사람은 혁명정신이 강할뿐만아니라 재간도 아주 비상하오. 아주 잘 만들었소!

믿음을 주시고 힘을 북돋아주시는 그이의 가르치심은 그대로 온 나라의 복구건설전투장마다에서 자력자강이 나래치도록 한 원동력으로 되였다.

강철로 대로를 내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선을 찾으신 주체４２(１９５３)년 8월, 제강소는 너무도 혹심하게 파괴되여있었다. 부서진 기계설비들과 폭탄구뎅이들이 덮힌 스산한 페허지대가 펼쳐져있었다.

이런 험한 곳에 우리 수령님을 모시게 된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어찌할바를 몰랐다. 단 한발자욱도 짚을수 없이 갈숲까지 우거져있었다.

한 로동자가 앞쪽에서 낫을 내려고 낫으로 서둘러 갈숲을 벨 때였다.

낫으로 길을 내다니, 로동계급이야 강철로 대로를 내야지라고 하시며 몸소 갈숲을 헤치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쓰러진 기둥을 넘으시고 고여있는 물웅뎅이를 에도시며 오랜 시간 구내를 돌아보시였다.

한그루 백양나무아래에 이르시여 의자를 밀어놓으시고 무너진 벽체우에 앉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강소를 우리의 힘, 우리의 자재, 우리의 기술로 복구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현대적대아금기지로 복구개건할 방도들과 단계별목표들에 이르기까지 환히 밝혀주시는 그이의 가르치심은 로동계급의 심장들에 신념과 락관의 기둥을 세워주었다.

강선의 로동계급은 우리 수령님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자력갱생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불과 수십일만에 2호전기로를 복구하여 첫 쇠물을 뽑은 강선의 로동계급은 미제의 뒤통수에 쇠물벼락을 들씌웠다.

5년이 아니라 단 2개월에

전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방직공장(당시)에도 나와보시였다.

한달음에 달려온 지배인과 로동자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우리 수령님께서는 우선 공장을 복구할 의논부터 하자고 하시였다. 싸움은 이겼으나 온 거리가 헐벗고있으며 귀여운 아이들이 천운을 걸치고 나많은 로인들이 춥게 지낸다고 갈리신 음성으로 이야기하시였다.

공장복구기간을 5년으로 계산한 방직공장피해정형조사단의 보고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에게 호소하시였다.

이 공장을 복구건설하는데 5년이 걸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공장 하나 복구하는데 5년이 걸리면 전쟁에서 파괴된것을 다 복구하려면 몇십년이 걸려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5년이 아니라 단 2개월동안에 이 공장을 복구건설하여야 한다. …

잠시후 모여선 로동자 한사람한사람을 믿음어린 시선으로 둘러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장복구를 전투와 같이 생각하고 맹렬히 거세로 달라붙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두달동안에 방직공장을 일으켜세울 구체적인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로동자들은 그이의 호소에 심장으로 화답해나섰다.

2개월, 이것은 수령님께서 주신 전투명령이다!

총창을 비껴들고 결전장에 나서듯 그들은 복구의 삽을 틀어쥐고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나갔다.

페허우에 솟은 기적들은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우리 수령님 이야기를 오늘도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리 금 분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며

《이런 동무들이 대홍단군의 기둥이 되여야 합니다》

리 기 선

주체88(1999)년 8월 10일이였습니다.

이제로운 제대군인부부들의 집단적인 새집들이로 《제대군인마을》이 생겨나 세상을 들썩하게 했던 우리 마을에 또다시 감격의 선풍이 일었습니다. 새집들이를 한 후 아직 부모들도 와보기 전인데 글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보아주시러 나오신다는것이였습니다.

온 마을이 기쁨으로 들끓었습니다.

솟구치는 격정에 제가 어찌할바를 몰라하는데 안해가 방안으로 뛰여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해바라기가 피였어요.》

《뭐라구…》

저는 무작정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정말 보기에도 소담한 세송이의 해바라기가 그림처럼 활짝 피여난게 아니겠습니까.

안해의 눈가엔 물기가 그렁그렁 빛났습니다.

사실 그 해바라기는 언제는 장군님께서 마을에 오시면 허전한 뜨락을 보여드릴것만 같아 안해가 씨를 구해 집집마다 나누어주며 심은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남의 집뜨락들에 심은 해바라기는 꽃이 피여난지도 여러날 지났는데 우리 집 해바라기만은 망울을 옥문채 도무지 필념을 하지 않는것이였습니다. 은근히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우리 집 해바라기들이 장군님 오시는 날을 맞추어 이렇듯 활짝 피여났으니 신기한 생각에 앞서 마음에 젖어드는 기쁨은 무엇이라 표현할길이 없었습니다.

그 기쁨이 채 잦아들기도 전에 지희 부부는 더 큰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시여 제대군인부부들의 열렬한 환호에 답례를 보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천천히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서시였던것입니다.

저는 한없이 울렁이는 마음을 다잡으며 군대에서처럼 큰소리로 인사를 드리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뵙고싶었습니다.》

저의 안해도 눈물섞인 목소리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장군님, 머나먼 길을 오시여 우리 집까지 찾아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오, 그래.》 라고 정겹게 저희들의 인사를 받아주신 그이께서는 집과 그 주변을 빙 둘러보시다가 저에게 물으시였습니다.

《어디서 복무하였소?》

저는 해군에서 갑판장으로 복무하였고 안해는 신포시에서 왔다는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는 따뜻한 표정으로 그럼 바다에서 여기까지 왔구만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이 동무가 해군에서 갑판장을 하던 동무인데 다들 와서 만나보라고 이르시였습니다.

불쑥 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해군에서 갑판장을 한것이 뭐길래?!…)

이때 군당의 책임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제가 군사복무를 거의 20년간 하였고 지금 나이는 36살이라는것, 그동안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사진만도 4차례나 찍었고 《김일성청년영예상》과 함께 많은 훈장을 수여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견한듯 저를 바라보시다가 등을 두드려주시며 《괜찮아, 용해.》라고 하시고는 여기 와서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로동자로서 부문당비서사업을 하고있다는 저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다시금 용타고, 앞으로 일을 더 잘하고 학습도 잘하여 훌륭한 일군이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천천히 우리 집문앞으로 다가서시였습니다.

《이 집은 1동1세대요?》

《장군님, 1동2세대짜리입니다.》

《그래, 그럼 어서 집에 들어가보자구.》

저희들과 함께 집안에 들어서신 장군님께서는 창고를 보신 다음 먼저 1층 아래방에 들러시였습니다.

다 알겠지만 우리 집은 1층에 두칸, 2층에 한칸 이렇게 세방으로 되여있습니다. 그중 1층 아래방을 기본방으로 쓰고있는데 그 방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들이 정중히 모셔져있고 한쪽벽에는 안해가 정히 손질한 저의 병사시절군복이 걸려있었습니다.

그이께서는 먼저 옷보를 벗기고 제가 받은 훈장들을 보아주시였습니다.

별로 한 일도 없는 저는 군사복무기간 경애하는 장군님의 배려로 《김일성청년영예상》을 비롯하여 13개의 훈장 및 메달들을 수여받았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동안 훈장들에 시선을 주신채 서게시다가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많이 했구만.》

그러시고는 천천히 기념사진들앞으로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잠시 사진을 들여다보시던 장군님께서 문득 저의 이름을 다정히 부르시였습니다.

저는 그이곁으로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이 기념사진에서 동무를 찾아보오.》

저는 어렵지 않게 찾아 가리켜드렸습니다.

《장군님,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기쁜 안색을 지으신 그이께서는 《어디?… 오, 여기 있었구만. 맞아. 동무가 맞아.》 라고 하시며 매 기념사진에서 그렇게 저를 일일이 찾아주시였습니다.

저의 눈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들생각이 났습니다.

그이의 모습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진을 찍은 아들이 너무도 대견해 사진앞에서 너는 어느 줄에 섰느냐, 그게 옳긴 옳으냐, 옳다, 네가 맞구나 하며 기뻐하시던 아버지 같았습니다.

기념사진에서 물러서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방안을 둘러보시다가 여기에 와보니까 집은 좋은데 텔레비죤수상기가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제대군인들이 당의 부름따라 대홍단을 꽃피우자고 온것만큼 천연색텔레비죤수상기를 주어야 합니다.

내가 천연색텔레비죤수상기를 인차 보내주겠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로 시선을 돌리시며 물으시였습니다.

《내가 제대군인들에게 천연색텔레비죤수상기를 보내주자고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소?》

격정에 목메인 일군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올렸습니다.

《장군님, 무슨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만족하시여 환한 미소를 지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텔레비죤을 보내주자고, 보내주되 하루라도 빨리 보내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안에는 승엄한 격정이 차고넘쳤습니다.

우리 대홍단제대군인들의 매 가정에 텔레비죤수상기를 놓아주자면 몇십대나 몇백대도 아니고 1,000대가 있어야 합니다. 천연색텔레비죤수상기 1,000대라는게 말이 쉽지 그 누가 감히 엄두나 낼 일입니까.

전사들을 위함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는 무한한 열정과 위대한 사랑을 지니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이 베푸실수 있는 은정이였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고마와 제가 눈시울을 적시는데 그이께서는 이제는 부엌을 좀 보자고 하시며 저를 이끄시였습니다.

한걸음 앞서 부엌으로 향하시던 장군님께서는 부엌문앞에서 걸음을 멈추시더니 저를 돌아보시며 조용히 웃으시는것이였습니다. 거기에서는 벌써 녀성일군들과 저의 안해가 그릇가지들이며 기초식품들을 놓고 녀성들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펼치고있었습니다.

잠시 미소를 짓고계시던 장군님께서는 저에게 부엌은 녀자들이 보고있으니 우리는 웃층으로 올라가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장군님을 모시고 웃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느 한 일군으로부터 전실과 웃층은 전기난방이고 아래방과 웃방은 온돌이라는 설명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창문앞에 다가서시였습니다.

끝간데없이 펼쳐진 감자밭이며 방풍림으로 규모있게 조성된 이깔나무숲, 잣나무숲이 북방의 특유한 풍치를 돋구는 고원의 등관은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왔습니다.

《방안에서 내다보니 경치가 좋습니다. 여름에는 정말 시원하겠습니다.》

기쁨넘친 시선으로 오래동안 대홍단벌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허물없이 침대우에 걸터앉으시였습니다.

저는 침대우에 있는 모포와 옷걸개에 정히 걸어놓은 결혼식옷을 비롯한 여러가지 옷들을 그이께 보여드렸습니다.

《장군님, 이것들은 다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선물들입니다.》

《오, 그래. 여기에 올 때 선물로 무엇을 받았소?》

장군님께서는 저의 대답을 들으시고 머리를 가볍게 끄덕이시다가 다시금 물으시였습니다.

《여기에 온 1,000명 제대군인들이 지금 다 있소?》

《다 있습니다, 장군님.》

《고향에 가겠다는 동무들은 없소?》

《없습니다.》

《음, 그렇단 말이지…》

어간만 만족해하지 않으시며 잠시 말씀을 끊으셨던 그이께서는 군복에 달려있는 훈장을 보아도 이 동무들이 군대에서 일을 많이 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고, 지금 각오도 좋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습니다.

《대홍단에 온 제대군인들은 조국보위초소에서 위훈을 세우고 사회주의농업전선에 달려온 참다운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들입니다.

이런 동무들이 대홍단군의 기둥이 되여야 합니다.》

그이의 힘있는 말씀에 저의 가슴은 찌릿이 젖어들었습니다. 얼마나 믿음넘친 말씀입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앞으로 대홍단에 온 제대군인들을 공부시켜 훌륭한 일군들로 키워야겠다고 하시고는 다시금 저에게로 시선을 돌리시였습니다.

《대홍단군에 파견된 제대군인들은 앞으로 도당학교와 김일성고급당학교에 갔다가 다른데는 갈 생각을 하지 말고 간부를 해도 여기에 와서 해야 합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어 큰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장군님, 저희들은 대홍단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그이께서는 《괜찮아, 괜찮아.》 라고 기뻐하시며 거듭 제대군인들이 대홍단군의 기둥이 되라고, 이 백두삼천리벌을 동무들에게 맡긴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홍단군의 기둥, 이것은 저희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라는 그이의 한없는 사랑과 크나큰 신임이였습니다.

제가 장군님의 이 믿음을 기어이 지키리라고 마음다지는데 저의 안해가 녀성일군들과 함께 웃층으로 올라왔습니다.

3 면 으 로 계 속

자력자강의 위력을 과시하며 일떠선 강성조선의 대동력기지

금야강군민발전소건설투쟁에 관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웅대한 강령을 받들고 온 나라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쳐나가고있는 속에 조국땅 동해지구에서 자강력제일주의 만세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자력자강의 보검을 틀어쥐고 세상이 보란듯이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에로 비약하며 김정은시대 전설의 대번영기를 끊임없이 이어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대규모의 금야강군민발전소를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웠다.

금야강에 풍부한 물원천을 리용하는 대규모수력발전소가 건설됨으로써 나라의 전력생산을 늘이고 수천정보의 농경지에 관개용수를 넉넉히 공급하며 금야벌을 큰물피해로부터 보호할수 있게 되였다.

산협을 가로지르며 치솟은 언제와 푸른 물 출렁이는 대인공호수, 발전소주변에 자리잡은 아담한 문화주택들은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락원의 강, 전기강으로 희한하게 변모된 금야강의 새 력사를 자랑하고있다.

굳함없는 공격정신으로 억세게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기상을 떨치며 솟아오른 발전소는 금야강의 천지개벽을 안아오시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와 우리 당에 드리는 군대와 인민의 충정의 선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수령의 유훈을 받들어 이 땅우에 어떻게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가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물자원이 풍부한 금야강에 대규모수력발전소를 일떠세울데 대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주체83(1994)년 7월 6일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도 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헌심로 꽃피우시기 위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발전소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2003년 4월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산세험한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며 금야강의 전변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과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높이 받들고 건설자들은 2003년 4월 나라의 전력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금야강군민발전소건설을 다그쳐끝내기 위한 궐기모임을 가지고 공사에 총진입하였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언제콩크리트타입량만 해도 120여만㎥에 달하고 발전기설과 수십㎞의 도로, 다리들을 일떠세워야 하는 발전소건설은 말그대로 대격전이였다.

그러나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다.》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은 금야강개척자들은 오직 자기 힘을 믿고 견인불발의 투쟁을 벌려나갔다.

중앙전력설계연구소의 설계가들은 높은 창조정신으로 두뇌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 금야강상류의 지형상특성에 맞게 기발하고 특색있는 3심원2중곡률아치언제를 설계해냈다.

함경남도에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자력갱생의 힘으로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강재와 세멘트 등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꾸려나갔다.

착공의 첫시작부터 험준한 산발을 뒤흔들며 언제공사를 위한 발파소리가 련속 울려퍼졌다.

짧은 기간에 철길건설이 끝나고 수십리의 도로가 번듯하게 닦아져 2003년 11월부터 방대한 토량과 암반을 처리해야 하는 언제기초공사에 총력량이 집중될수 있게 되였다.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서 위훈떨친 인민군군인들을 대자연개조전투장에 불러주시고 나라사정이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대형콩전기재들도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은정은 온 공사장을 기적과 위훈창조의 불도가니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였다.

백절불굴의 혁명적군인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한 그 본때, 그 기세로 발전소를 훌륭히 완공하자!

선군혁명의 기수, 사회주의건설의 주력군의 영예를 떨쳐갈 이 신념의 명세로 가슴 불태우며 군인건설자들은 숙소부터 마련한것이 아니라 전투장으로 달려나갔다.

오직 제힘으로 부흥강국의 억센 기둥인 만년언제를 일떠세울 열의에 충만된 인민군군인들과 함경남도내 공장, 기업소들에서 돌격대를 꾸고 달려나온 청년들과 건설자들이 웨치는 돌격전의 거세찬 함성소리, 콩전기재들의 힘찬 동음이 금야강반을 진감하였다.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107만㎥의 토량과 암반을 처리해야 하는 기초굴착과 기초콩크리트치기가 단시일에 끝나고 언제가 솟구치기 시작하였다.

군인건설자들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애국의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화안언제공사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였다.

40여일만에 혼합장과 선별장을 새로 꾸려놓고 혼합물생산속도를 최대한 높여 언제콩크리트치기실적을 부쩍 올릴수 있는 담보를 마련한 이들은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 내달리는 대담한 공격정신으로 콩크리트치기를 중단없이 들이대였다.

자동조종에 의한 콩크리트혼합물생산공정이 확립되여 혼합물생산이 건설초기에 비해 2배로 늘어나고 대형기중기들의 가동률이 120%로 높아지는 속에 언제는 하루가 몰라보게 솟구쳐올랐다.

2004년부터 몇해째 계속된 자연의 광란을 물리친 7월의 결사전들은 건설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영웅적위훈을 력사에 새기고있다.

억수로 쏟아지는 폭우와 초당 4,000㎥로 들이닥치는 큰물이 1선, 2선가물막이와 숙소들을 삽시에 쓸어버리고 수송로마저 끊어놓았다.

군인건설자들은 진격의 앞장에서 돌과구를 열어나갈 일념을 안고 불아치는 비바람속에서도 끊어진 철길로반과 도로를 단 3일동안에 복구하였다.

난관이 겹쌓일수록 공사장에서는 언제나 혁명군대의 드센 공격정신과 량만이 차넘치는 투쟁의 노래, 혁명가요가 우렁차게 울려퍼졌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2006년 9월에 하신 현지지도는 당의 부름이라면 천만산악도 떠옮기는 혁명군대의 투쟁기풍, 건설자들의 애국충정을 활화산처럼 분출시켰다.

백수십m 높이에서 한달이상 걸려야 한다던 어렵고 위험한 무넘이언제수문휘틀설치작업이 결사대의 철야전투로 한주일도 못되는 기간에 결속되는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들도 련이어 창조되였다.

우리 당이 지펴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던 2009년의 150일전투기간에 언제타입속도가 종전의 2배, 최고 3배를 기록하며 화안언제공사가 계획보다 앞당겨 결속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그 어떤 만년언제도 쌓아갈 담력과 배짱을 지니고 창조의 능수들로 자라난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도 우안언제공사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갔다.

인민군군인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세를 본받아 수천㎥의 토량과 암반을 들어내며 가물막이와 기초굴착공사를 다그치고 선별장가까이에 대형파쇄기를 설치하여 골재생산에서 날마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당의 구상을 빛나게 실현할 의지를 안고 건설자들은 언제콩크리트타입전투장마다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기존공식과 관념들을 깨뜨리며 새 기록, 새 기준을 창조하였다.

언제기중기의 부족으로 작업속도를 높일수 없게 되자 건설자들은 초고전력전기로를 일떠세운 강선의 로동계급의 일본새로 자체의 힘으로 제작할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세웠다.

자기 힘에 대한 확신,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오직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로 언제기중기를 제작하여 수십m 언제우에 올려세우고 콩크리트타입속도를 2배로 끌어올리였다.

시련과 난관이 중첩될 때마다 건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였던 그날의 영광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불사조와 같이 일떠섰다.

위대한 당의 명도가 있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같은 신념은 례년에 없는 큰물이 또다시 들이닥쳐 대형기중기마저 형체없이 파괴되였을 때에도 주저하지 않고 《군민》호대형기중기를 새롭게 제작해낼수 있게 한 자력갱생의 힘있는 원동력으로 되였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 건설장의 실정에 맞는 골재선별자동흐름선이 도입되고 새로운 콩크리트시공방법이 창안되여 대소한의 강추위속에서도 40여일동안에 콩크리트타입량은 종전의 같은 기간보다 2만여㎥나 더 늘어나고 새로운 가배수로밀폐방법의 도입으로 완공의 돌파구가 열리였다.

대형기중기로 100m아래 혼합물을 단번에 들어올려 온 건설장을 깜짝 놀래운 나어린 단발머리처녀운전공들, 허리치는 차디찬 감탕속에서도 굴착작업을 중단하지 않았고 한겨울의 맵짠 강풍속에서도 대형철관휘틀을 설치한 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담들이 발전소건설투쟁의 나날에 무수히 꽃펴났다.

헌신적인 투쟁으로 언제를 산악같이 쌓아올린 대자연의 정복자들이 2010년 6월 25일 언제공사의 절정과도 같은 가배수로밀폐작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수수천년 흐르던 금야강이 마침내 흐름을 멈추었다.

군민건설자들의 불타는 애국심과 자강력에 떠받들려 천연의 수림으로 뒤덮였던 금야강상류에 대규모의 언제가 온 세상이 보란듯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2010년 8월 4일 완공된 발전소언제를 돌아보시며 군민건설자들의 투쟁위훈을 값높이 평가하여주신 그 믿음은 건설자들이 금야강군민발전소건설을 다그쳐끝내는데서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더 높이 발휘할수 있게 하였다.

발전기실공사에서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이 세차게 나래쳤다.

공사를 맡은 함경남도돌격대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질좋은 골재원천지를 마련하고 수백m구간에 발전기실을 보호하기 위한 옹벽쌓기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50㎏이상의 혼석마대를 지고 하루 수십리길을 달린 돌격대원들의 위훈속에 건설장의 모습은 날마다, 시간마다 눈에 띄게 달라졌다.

발전기실건설을 기한전에 마무리하는 투쟁의 불길속에 돌격대원들은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자기 힘을 믿고 일떠서는 굳센 의지의 소유자들로 억세게 자라났다.

발전소완공을 앞당기는데서 관건적고리인 발전설비조립전투에서 혁신의 불길이 타올랐다.

건설자들은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 식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더욱 소중하고 빛난다는 철리를 깊이 새겨안고 새롭고 능률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구조가 복잡한 발전기조립에서 높은 정밀도를 보장하였다.

한달이상 걸린다던 발전기회리실조립을 지상확대식조립방법으로 불과 3일동안에 완성하고 발전기설치가 끝나야 할수 있다던 관망공사를 선행시켜 발전기조립기일을 훨씬 앞당길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설비조립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기발한 착상으로 60° 산경사지의 높은 곳에 수백t이나 되는 압력철관을 끌어올려 설치해야 하는 어려운 공사기일을 다섯달로부터 50일로 단축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발전소건설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속에는 철탑조립을 40여일만에, 한주일은 걸려야 한다던 가장 힘든 구간의 피뢰선과 송전선늘이기를 이틀동안에 해제끼며 20여㎞의 송전선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 함경남도송배전부 로동계급의 불굴의 투쟁위훈도 깃들어있다.

우리 나라 언제건설력사상 처음으로 독특한 대형언제설계기술이 도입되고 우리 식 가배수로밀폐방법을 비롯하여 실리적인 공법들과 기술혁신안들이 수십건이나 창안도입되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룡성기계련합기업소와 함흥강철공장, 부래산세멘트공장, 천내리세멘트공장, 함흥철도국 등 련관단위들에서도 적대세력들의 비렬한 제재와 봉쇄책동을 짓부시고 기어이 우리 힘으로 필요한 모든것을 해결해나갈 신념과 배짱으로 대상설비를 비롯한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강재, 세멘트 등을 제때에 생산보장함으로써 발전소완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대규모수력발전기지의 하나인 금야강군민발전소가 일떠섬으로써 발전소아래에 계단식으로 중소형발전소들을 건설할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였으며 금야군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시작한 금야강2호발전소건설은 완공을 앞두고있다.

대동력기지에서 울려퍼지는 거세찬 동음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최후발악하는 제국주의원쑤들에게 내리는 자강력제일주의의 철퇴이며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강성번영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가는 우리 인민의 힘찬 대진군은 필승불패이라는 철리를 뚜렷이 실증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조선의 만리마시대를 펼치며 최후승리를 향해 질풍쳐나아가는 대고조전진길에서 부강조국의 만년재부로 일떠선 금야강군민발전소는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을 전하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주체105(2016)년 8월 4일
평 양

2면에서 계속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일별하시던 장군님께서 저의 안해에게 나직이 물으시였습니다.

《그래 일신은 했나?》

뜻밖의 물음심이에서 저의 안해는 붉어진 얼굴만 다소곳이 숙였습니다.

그러는 저의 안해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머금으시던 장군님께서는 다정히 자식을 빨리 낳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였습니다.

《자식들이 래여나 자라면 부모들이 당의 부름따라 대홍단에 와서 뿌리내리고 일해놓은것을 자랑스럽게 추억할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들이 한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백두대지의 주인, 그것도 이 대지의 주인으로 자란 우리의 후대들이 전세대들을 추억하게 될 먼 래일을 그려보시는것이였습니다.

분명 이것은 우리 제대군인들뿐아니라 그 후대들까지도 이 땅의 주인, 기둥이 되여야 한다는 그이의 간곡한 당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새집들이한 후 부모들은 와보았는가, 부모들과 함께 사는 동무들은 없는가고 물으시고는 이런 좋은 집에서는 부모들과 함께 살면 좋겠다고 하시며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가시였습니다.

그이께서 밖으로 나가시려고 할 때였습니다. 저의 안해가 장군님께 한가지 소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걸음을 멈추신 장군님께서는 다정한 눈빛으로 물으시였습니다.

《뭐요?》

《…》

《어서 말해보오.》

《아버지장군님,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신 대홍단벌의 자식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가족사진을 찍어주십시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찍자구, 동무들과 같이 찍어야지, 어서 밖에 나가자고 하시며 제가 어디에 있는가고 찾으시였습니다.

거듭되는 영광에 겨워 한켠에서 눈굽을 적시고있는 저를 알아보신 장군님께서는 저희들을 밖으로 이끄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부부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가운데 모시고 우리 집을 배경으로 뜻깊은 가족사진을 찍었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그이께서는 또다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수고하오.》라고 따뜻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장군님께서 파견하신 파견원답게, 제대군인답게 감자농사를 잘 지으며 꼭 대홍단의 기둥이 되겠다고 그이께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소, 고맙소.》라고 만족을 표시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안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기 바라오. 그리고 세대주를 잘 도와주라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저의 집을 다녀가신 후에도 이런 동무들이 대홍단군의 기둥이 되여야 한다고 하신 그이의 말씀은 저의 귀전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저의 형제는 6남3녀로 9형제이고 처가쪽은 1남5녀로 6형제입니다. 그중 저와 안해는 다같이 막내자리를 겨우 면했습니다. 때문에 누구 하나 자기 일가의 기둥이라거나 또 기둥이 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홍단군의 기둥으로 내세워주시니 정말 그 신임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자꾸 눈물만 솟구쳤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였습니다. 이 크나큰 믿음은 대홍단에 뿌리내린 전체 제대군인들을 무한히 격동시켰습니다.

(기어이 감자농사를 잘 지어 이 땅의 주인, 기둥이 되라고 하신 장군님의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자.)

우리는 길을 걸어도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오직 이 한가지 생각뿐이였습니다.

낯선 고장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일인지라 모든 일이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장군님의 그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들에게 열정을 주고 힘을 주고 지혜를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렇듯 감자대풍이라는 훌륭한 결실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참으로 높이 솟은 감자산들은 보기만 해도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옛그제 여기 대홍단의 기둥으로 뿌리내린 우리 제대군인들의 키가 그만큼 자랐기때문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대군인마을》의 전체 제대군인들과 안해들은 몇번이고 평양의 하늘가를 우러러 절절히 아뢰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 대홍단군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감자농사를 더 잘 지어 장군님을 받드는 대홍단의 기둥, 조국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주체90(2001)년 1월

우리 식의 창조본때, 창조기풍은 기적을 낳는다

평양곡산공장에서

우리는 얼마전 평양곡산공장을 찾았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개건된 공장의 자랑스러운 모습속에 비껴있는 공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류다른 창조기풍, 창조본때가 우리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당에서 내세운 전형단위들을 따라배워 자기 면모를 일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평양곡산공장의 모든 생산공정들을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영예로운 전투과업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모든 설비들을 공장자체의 힘과 기술로!

47종에 116대의 설비들을 석달 남짓한 기간에 제작한다는것은 보통의 각오나 준비정도를 가지고는 엄두도 내지 못할 실로 아름찬 과제였다. 더구나 일부 공정의 설비는 이들이 새롭게 착상하여 설계하여야 하였다.

접과자로장공정설비와 사탕생산공정의 련속식탕의기설계만을 놓고보아도 그러했다.

로장공정설비들은 보통 수입에 의존하거나 해당 과학연구기관의 방조를 받는것이 전례였다. 그런가 하면 련속식탕의기는 아직 그 어디에도 없는 설비였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나날에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심장깊이 새겨안은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대담하게 설계전투에 뛰여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지혜와 열정을 합치고 피타는 탐구의 노력을 기울여 발전된 나라들의 설비에 못지않은 로장공정설비들을 훌륭히 설계해내고야말았다. 련속식탕의기제작을 단번성공에로 이어지게 할수 있는 종전의 탕의기를 묶는 식으로 하는 기발한 착상도 내놓아 사탕생산공정현대화를 위한 돌파구를 열어제끼였다.

모든 생산공정들의 자동화, 흐름선화와 함께 무인화를 전제로 하는 식료공업의 현대화는 기술공학적요구가 높은것으로 하여 설계에서뿐아니라 설비제작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된다. 그런것으로 하여 전문기계공장들에서도 식료설비제작에는 보다 많은 품을 들이게 된다.

공장의 기계설비들을 수리하고 필요한 부속품이나 만드는 공무직장에서의 설비제작전투는 그야말로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이였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총궐기시키는 일군들의 첨입식정치사상공세가 로동자, 기술자들을 열백배로 분발시켰다.

무조건 제 남자에 우리들의 손으로 기어이 만들어야 한다는 립장에서 이곳 기술자, 로동자들은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과자생산공정설비와 련속식탕의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설계가 완성되기 바쁘게 제작전투에 진입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려나갔다.

이 과정에 기발하게 착상된 주물방법이 나오고 지구장비들을 리용하여 선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던 소재를 가공해낼수 있는 방안이 탐구되여 구조가 복잡한 떡합과자성형기가 짧은 기간에 손색없이 만들어졌다. 기름사탕의 질보장에서 중요한 농축물혼합기의 남개축조립정밀도도 기존방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조립상태에서 가공하는 방법으로 설계의 요구를 만족시킬수 있게 하였다.

과학기술중시의 열풍속에 국산화비중을 95%이상 보장하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꾸려놓은 생산공정의 설비들을 돌아보느라면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또 다른 창조기풍을 엿볼수 있다. 나라에 손을 내밀지 않고 자체로 제작한 설비들 하나하나가 외형적으로도 흠잡을데가 없이 훌륭한것이다.

하나의 창조물을 내놓아도 먼 후날에도 손색없게 최상의 질을 보장하자, 바로 이런 애국의 마음을 지니고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설계도면의 점 하나, 선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였고 설비제작의 모든 공정마다에서도 창조와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 떨쳐나선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숭고한 정신세계에 감동된 국가과학원 경공업과학분원 곡물가공연구소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과학자, 연구사들도 통합생산체계구축과 착수기, 착유기설계를 높은 수준에서 결속하였다.

자기 힘과 기술로 현대화를 실현하는 과정에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신념화, 체질화한 창조의 강자들로 더욱 억세게 자라났고 과학기술봉마의 고삐를 든든히 틀어쥐였다.

그렇다. 국산화를 중핵으로 하는 현대화,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은 이런 기적을 낳는다.

글 본사기자 정경철
사진 본사기자 리충성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한 증산투쟁으로 들끓는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멸사복무정신의 높이이자 석탄산의 높이

형봉탄광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석탄공업부문에서 처음으로 련합기업소를 무어주신 굴지의 석탄생산기지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총정의 200일전투성과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200일전투 첫달에 이어 7월 석탄생산목표를 강행돌파한 기세드높이 이달에도 련합기업소 탄광들에서는 매일 인민경제계획에 비할바없이 많은 량의 석탄이 생산되여 북창의 대동력기지의 전력생산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채탄장기계화장비를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탄광기계공장에서는 근 1 000대에 달하는 탄차들을 제작해내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200hp권양기도 만들어내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그런가하면 탄광부재공장에서는 고강도세멘트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여 갱도영구화성과가 확대되고 유용광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되고있다.

련합기업소 어느 탄광, 어느 막장, 어느 일터에 들려보아도 탄부들과 로동자들의 전투사기는 하늘을 찌를듯 높고 북창과 남흥의 전력생산기지와 비료생산기지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해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수 있다.

한 단위의 전투승패를 좌우하는 주되는 요인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과 튼튼한 배심을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기어이 인민의 만복이 꽃피나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일떠세워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어렵고 수행해야 할 목표가 방대하다 하여도 일군들이 당정책을 땐 앞장에서 결사관철하는 기수,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기관차가 되여 억세게 내달릴 때 전투승리의 돌격로가 열리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곳 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는 본받을만 한 점이 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에서는 채굴조건이 좋고 전망이 좋은 제남, 남양탄광에 투자를 집중하여 생산량을 부쩍 늘이면서 시창청년탄광, 덕천탄광, 형봉탄광, 월봉탄광, 력성탄광의 채탄장들을 심부에로 이동전개하고 운반능력을 높임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에 제시된 석탄생산목표를 점령할 작전을 펼치고있다.

이에 따라 각 탄광에서는 현행석탄생산을 보장하면서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 탄광기계공장, 탄광부재공장에서는 압축기, 권양기, 버럭적재기를 비롯한 탄광설비들과 영구화부재들을 생산하여 탄광들에 보내주기 위한 투쟁이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당 제7차대회 결정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전투에서 높은 석탄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자면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200일전투에 진입하던 나날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일군이 서창청년탄광의 갱막장을 나서면서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가 시사적이다.

석탄생산을 70일전투때와 같이 계속 고조시키자면 제기되는 문제가 많다.

하지만 전투승리를 결정하는 중심고리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르쳐주신것처럼 대중의 정신력발동에 있다. 전화의 나날 1211고지에서 창조된 영웅적위훈을 돌이켜보자.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를 꺼꾸러뜨린 기적의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돌려주신 병사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였다. 오늘날 200일전투승리의 기본열쇠도 바로 우리 일군들의 탄부들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에 있다.

책임일군은 그길로 탄부오리공장으로 향하였다. 공장지배인, 책임기사를 비롯한 일군들을 만나 생산형편도 알아보고 탄부 1인당 고기공급량도 가늠해보면서 그는 탄광기계공장과 탄광부재공장을 비롯한 산하단위 로동자들에 대한 공급문제도 알아보았다.

그곳 일군들은 탄부들에게 배탈 오리고기를 정상공급할수 있는 조건은 마련되였는데 산하단위 로동자들에게까지 정상공급하자면 좀 힘들다고 이야기하였다.

책임일군은 고기생산을 늘이기 위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주면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200hp권양기, 고강도세멘트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에게도 탄부들과 같이 공급해주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그날 련합기업소생산총화모임때였다.

하루생산총화에 앞서 담당한 단위의 탄부들과 로동자들의 생활상애로를 얼마만큼 풀어주었는가를 먼저 총화하던 종전과는 달리 이날에는 생산총화가 먼저 시작되였다.

뒤이어 200일전투에서 뚜렷한 위훈을 세우고있는 혁신자들에 대한 료해사업이 진지하게 진행되였다.

영문을 모르는 일군들은 아마 책임일군이 오리공장을 방금 다녀왔으니 혁신자탄부들에 대한 고기공급문제때문일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책임일군은 혁신자탄부들에 대한 휴양을 조직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것이였다.

전투가 한창이고 그것도 한명의 로력이 긴장한 때에 혁신자탄부들을 휴식시킨다는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혁신자탄부들이 휴식하는 기간 우리 일군들이 그 초소를 지킵시다!

이렇게 되여 모임에서는 주별로 진행되는 련합기업소사회주의경쟁에서 우수한 단위의 갱초급일군들과 탄부들에 대한 휴양조직사업이 진행되였다. 혁신자들은 흡족히 꾸려진 휴양시설에서 쌓였던 피로도 풀고 문화정서생활을 누리면서 휴양생활을 보내게 되였다.

200일전투기간에 진행된 탄부들의 휴양생활소식, 그것은 거다란 전인력으로 련합기업소의 모든 갱, 막장들에 퍼지였으며 탄부대중의 애국충정을 더욱 활화산처럼 폭발시키는 기폭제로 되였다.

련합기업소에서 이룩되고있는 뚜렷한 성과의 밑바탕에는 바로 전투승리의 중심고리를 대중의 정신력발동에서 찾은 이곳 일군들의 멸사복무정신이 놓여져있는것이다.

우리 일군들이 이곳 일군들처럼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 혁명적사업방법을 적극 구현해나간다면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총정의 200일전투목표를 능히 돌파할수 있으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될것이다.

전망생산의 돌파구를 열어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당과 사상도 습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야 합니다.》

석탄생산과 굴진, 이것은 탄광들에서의 기본전투목표이다. 따라서 전투력량의 대부분이 바로 여기에 돌려지고있는것이다.

그러나 200일전투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형봉탄광에서는 석탄생산과 굴진외에 또 하나의 중요전투가 벌어지고있다.

그것은 대성갱, 솔밭갱을 비롯한 갱들의 심부에서 백수십만m³에 달하는 물을 퍼올리고 채탄장을 전개하기 위한 전투이다.

높이 내세운 현행석탄생산목표를 수행하면서 200일전투목표에 반영된 기본굴진과 준비굴진에 의한 확보탄량을 늘이자고 해도 말처럼 헐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탄광의 일군들은 5년후 탄광의 앞날을 확신성있게 내다보며 어려운 길이지만 결연히 큰걸음을 내짚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탄광에서는 백수십명규모의 침수복구돌격대가 무어졌다.

석탄생산, 굴진이외의 또 하나의 기본전선이라고 말할수 있는 이 전투에서 지배인 김창웅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기관차적역할을 수행하고있다.

그들의 남모르는 노력속에 불과 몇달동안에 배수능력이 종전에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10여대의 10in 5단, 6in 5단뽐프들이 대성갱과 솔밭갱을 비롯한 주요전투장들에 집중적으로 전개되였다. 수백개의 베아링을 비롯한 설비부속품들이 전투현장에 전진 공급되였다.

련합기업소의 방조밑에 10in 5단뽐프 5대, 능력이 큰 전동기, 1 000여m의 배관을 탄광의 침수복구전투장에 또다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이 세워졌다.

이제 얼마후이면 뽐프들이 증설되고 배관설치공사가 힘있게 벌어져 탄광의 배수능력은 또 한계단 높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심부의 물을 여러 단계로 뽑아내기 위한 여러 갱들에서의 저수음보수공사도 성과적으로 끝났다.

탄광가두너벙원들이 저수음보수공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결사의 전투를 벌려 방대한 량의 갱량을 석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처리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높이 내세운 200일전투목표를 돌파하자면 채탄장들과 굴진막장들에 더 많은 설비와 자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곳 탄광에 또 하나의 전선이 생겨나고 많은 설비와 자재, 로력이 집중투하되는것은 결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다.

문제는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일군들의 자세와 립장이다.

일군들이 눈앞에 닥친 전투목표수행에만 급급하면서 낡은 일본새를 버리지 못한다면 혁명의 요구, 당의 요구에 발걸음을 맞출수가 없고 전진하는 대오의 뒤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법이다.

이곳 일군들은 200일전투목표에 반영된 석탄생산목표를 돌파하기 위한 갱단위별 일군담당제를 실시하고 사회주의경쟁도 치렬하게 벌리고있다.

지배인, 초급당위원장, 기사장을 비롯한 탄광일군들이 한개 갱단위씩 맡고 내려가 코대별 생산조직을 짜고들면서 생산자대중의 증산열의를 총폭발시키고있다.

어느 일군이 담당한 갱이 앞서나가는가.

사회주의경쟁의 치렬한 불길속에 갱들에서는 련일 드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고 전망생산을 위한 전격로가 열리고있다.

천리길도 첫걸음으로 시작된다는 말이 있듯이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앞을 내다보며 대담하게 작전하고 혁신적으로 일판을 전개해나가는 단위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의 지름길이 열리는 법이다.

기어이 돌파하자 증산목표를

월봉탄광 회둔갱 일군들과 탄부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총정의 200일전투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월봉탄광 회둔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전투장마다에서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이들이 불타는 애국충정과 헌신의 구슬땀으로 이룩해가는 200일전투실적을 보라.

석탄생산량 년초에 비해 무려 5배이상으로 장성!

높이 세운 일전투목표 110%이상으로 넘쳐 수행!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이들의 투쟁목표는 명백하고 실천 또한 대담하다. 올해에 높이 세운 석탄증산목표를 기어이 초과완수하자!

지난 기간에 비해 석탄생산을 비약적으로 장성시킨 회둔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련속공격전을 과감히 전개하고있다.

김용호, 서익현동무를 비롯한 갱의 일군들이 언제나 전진하는 대오의 기수가 되여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며 혁신의 앞장에 섰다.

이에 발맞추어 고속도굴진소대와 채탄1, 2, 3중대, 운반중대와 설비중대의 모든 전투원들이 당앞에 다진 맹세를 목숨마저 지켜갈 불타는 일념안고 막장마다에서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가고있다.

경사각이 20°에 달하는 올리막과 잇닿은 구간에서 발생한 뜻밖의 붕락, 크고작은 바위들이 수시로 떨어져내리는 붕락구간으로 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육탄이 되여 돌입하였다. 이들은 생명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고 앞을 다투어 버력을 쳐내고 동발을 드리며 치렬한 결사전을 벌리였다. 그리하여 4일 이상은 실히 걸려야 할 방대한 복구작업을 단 18시간만에 해제끼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하루 2교대씩이나 증산투쟁을 벌려 매일 전투목표를 125%로 초과완수하고있는 김명수, 리진남, 서창룡, 강창수, 리광국동무를 비롯한 채탄1, 2, 3중대의 탄부들, 석탄을 가득 실은 탄차에 탄마대들을 덧싣고 달리며 운반과제를 넘쳐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권명호, 김영식동무들과 공훈탄부인 김시호동무, 불리한 조건에서도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책임적으로 보장하고있는 김용석동무.

이들모두의 가슴마다에 최고생산년도수준을 기어이 강행돌파하고 200일전투의 결승선에 남먼저 펏펏이 들어서려는 강렬한 열망이 차넘치고있다.

하기에 얼마전 련합기업소적으로 벌어진 수백개에 달하는 채탄중대들의 사회주의경쟁에서 1, 2, 3등을 모두 이곳 회둔갱의 채탄중대들이 차지하는 눈부신 위훈이 창조되였다.

지금 200일전투 첫달계획과 7월목표를 앞당겨 점령한 월봉탄광 회둔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높이 세운 올해 석탄증산목표를 기한전에 수행할 열의안고 막장마다에서 자랑찬 승전포성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울려가고있다.

현지보도반

은을 내는 교대별화상총화모임

◎제남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건이 불리하고 애로가 많을수록 경제발전의 중심고리를 정확히 찾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경제전반을 활성화해나가야 합니다.》

당의 부름따라 총정의 200일전투에 용약 떨쳐나선 제남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이 날에 날마다 드높은 증산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생산량에 있어서나 계획수행률에 있어서 련합기업소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탄광을 찾았던 우리는 코대별로 어김없이 진행되고있는 화상총화모임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지난 6월 어느날 지배인을 비롯한 탄광책임일군들은 어떤 단위들에서는 생산실적이 높은 반면에 일부 단위들의 생산이 응당한 높이에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를 두고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그 단위들에서 생산이 오르지 못하는데는 채탄장조건문제, 운반문제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다.

조건만을 따진다면 그 단위들에서는 응당한 200일전투성과를 기대할수 없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우리 일군들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이런 각오를 안고 일군들은 2갱의 채탄장들을 대담하게 이동전개하고 독립2중대에서는 권양능력을 높여 생산의 전망을 열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새 탄맥을 찾아내야 하는 2갱에는 기술공정일군들을 내려보내고 운반능력을 높여야 하는 독립2중대에는 설비문제를 전문적으로 맡아 수행하는 기술일군들을 내려보내여 전격의 돌격로를 열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현행석탄생산전투를 중단없이 내밀면서 진행하여야 하는 사업인것만큼 전투조직과 지휘를 보다 구체적으로 짜고들 때에만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이를 위하여 탄광일군들은 코대별화상총화모임을 발기하였다.

탄광에는 이미전부터 탄광생산지령실과 갱막장들을 련결하는 화상에 의한 정연한 생산지휘체계가 서있었다.

갱들이 분산적으로 널려져있는 조건에서 탄광참모부에서는 화상을 통하여 갱장들과 갱담당생산참모회 성원들, 갱단위들을 담당하고 내려간 일군들이 하루 생산정형을 총화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그날로 대책을 세우고있다.

탄광책임일군들은 이 화상총화모임을 코대별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전투조직과 지휘가 보다 세밀화되여 분산과 협동생산조직이 펴여지고 생산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보다 원만히 풀수 있었으며 코대생산준비도 치밀하게 갖추어지게 되였다.

결과 이전시기 불리한 조건으로 생산이 좀처럼 추서지 못하던 2갱과 독립2중대를 비롯한 단위들에서 생산의 돌격로가 열리고 생산실적이 올라가는것이 눈에 뜨이게 나타났다.

총정의 70일전투에 이어 200일전투에서도 드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는 탄광의 자랑찬 성과의 밑바탕에는 이렇게 오직 석탄증산만을 안고 사색하고 실천하는 탄광일군들의 빈틈없는 조직사업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4일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락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백두산대국의 무궁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총련의 민족주의적민족교육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제31차 송도원국제소년야영에 참가한 여러 나라 야영단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제31차 송도원국제소년야영에 참가한 여러 나라 야영단들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야영단성원들은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에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부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란자니아소년야영단 단장 프레드 찰레와 은데끼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조선인민이 만경대고향집을 잘 보존하고 새 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있는데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로씨야소년야영단(1조) 단장 따찌야나 쁠리무크는 만경대를 방문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유서깊은 이곳을 돌아보며 김일성동지에 대한 조선인민의 끝없는 흠모심을 깊이 느끼였다고 말하였다.

여러 나라 야영단들은 이밖에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과학기술전당, 중앙동물원 등을 참관하였다.

답사행군길에서 본 잊을수 없는 모습

지난 6월 전국청소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소식이 널리 소개되였다.

답사행군대원들의 장한 모습도 잊을수 없지만 그들을 위해 남모르게 수고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꼭 전해야겠다는것이 답사행군에 참가하였던 우리의 생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성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있는 보건일군들이 지녀야 할 정신도덕적풍모입니다.》

백두산아래 무두봉에서 답사행군대원들의 천막생활, 밤하늘의 별들마저 잠든듯싶은데 한곳의 불무지만은 꺼질줄 몰랐다.

우리가 다가서는것도 모르고 김만유병원의 의사 신철우, 황명일동무들과 간호원 문은희, 장봉황동무들은 래일 백두산으로 오를 때 있을수 있는 정황들에 대한 대책을 답사행군대원명단을 놓고 밤중을 그어가며 면밀히 세워가고있었다.

방금전까지 수많은 답사행군대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끝낸 그들은 아마도 다음날 답사행군보장을 위해 밤을 새려는듯싶었다.

우리의 눈굽은 젖어들었다. 답사행군길에서 많은 행군대원들을 돌보며 힘을 주군 하던 이들이 아니였던가.

며칠전의 일이 떠올랐다.

어둠이 깃들어 시계바늘이 밤 1시를 가리키고있을 때 구급환자가 발생하였다.

신철우, 황명일동무들은 즉시에 1차구급대책을 세우고 협의하에 긴장한 치료전투를 벌렸다. 그 과정에 과연 이 환자를 대오에 다시 세울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섰다. 그들은 맥을 놓지 않고 적극적인 치료에 달라붙었다. 간호원들도 보조를 맞추어 환자를 극진히 간호하였다.

그들의 지극한 정성이 깃든 약물이 자기의 몸으로 흘러들 때 환자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있었다. 그들의 정성에 의하여 환자는 다시 행군대오에 섰다. …

어느덧 새날이 밝았다.

용기백배, 사기충천하여 백두산으로 오르는 답사행군대오, 백두산의 하늘가에 메아리치는 답사행군대원들의 만세의 환호성.

우리는 대오속에서 김만유병원의 의사들과 간호원들의 모습을 찾을수가 없었다. 아마도 대오속을 오가며 답사행군대원들의 건강을 보살피고있으리라.

답사행군의 날과 날들을 그들은 이렇게 맞고보내였다.

대오에 환자가 생기면 적극적인 치료전을 벌리느라 행군중의 휴식시간이면 더욱 바빴던 그들이였다. 행군이 끝난 저녁에도 치료가방을 메고 답사행군대원들을 찾아다닌 그들이였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그들은 조용히 자기 초소로 돌아갔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잊을수 없었다.

의사들이 답사행군의 나날에 꿀을 비롯한 귀한 보약재들까지 마련하여 환자치료에 쓴 감동깊은 이야기도 있고 부족되는 의료품을 마련하기 위해 간호원들이 남모르게 걸은 밤길도 있다.

백두산으로 가는 길, 그 길에서 얼마나 잊을수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것인가.

김만유병원의 의사, 간호원들도 그런 사람들이였다.

우리의 뇌리에 그들은 항일유격대의 군의들처럼 새겨졌다.

본사기자 김철혁

스위스공산당대표단 도착

마씨밀리아노 아이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스위스공산당대표단이 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도착

류창순 부하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일조우호교육교류대표단 귀국

일조학술교육교류협회 부회장 소노떼 마모루를 단장으로 하는 일조우호교육교류대표단이 4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16년 세계어머니젖먹이기주간에 즈음한 토론회 진행

2016년 세계어머니젖먹이기주간에 즈음한 토론회가 4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였다.

보건부문, 중앙기관, 출판보도기관 일군들, 평양시내 녀성들과 주조 유엔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 대표들을 비롯한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여러 나라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지난 기간 어머니젖먹이기활동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갓 태여난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젖젖을 먹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들은 어머니들과 갓난아이들의 건강보호와 영양관리에서 필수적인 어머니젖먹이기를 적극 장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우리 나라에서의 어린이보육교양정책과 어린이성장발육에서의 세계적추이》, 《어머니젖먹이기와 생의 첫 1 000일》이라는 제목의 토론들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특화편집물 《젖먹이어린이건강관리》를 시청하였다.

이날 2016년 세계어머니젖먹이기주간에 즈음하여 주조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은 평양산원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스위스공산당대표단

전국농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사리원 8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전국농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3일과 4일 김일성종합대학 계응상농업대학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김일성종합대학 계응상농업대학, 김제원해주농업대학, 고려성균관과 농업과학원 벼연구소, 농업생물학연구소, 황해북도농업과학분원, 농업성 농기계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교원, 연구사, 기술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발표회에서는 농기계의 규격화, 표준화방법, 다수확버들종육종의 세계적추세와 전망 등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종자분과, 과학농법분과, 농기계분과로 나뉘여 진행된 발표회에는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다수확우량품종들과 물절약형농법, 유기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90여건의 가치있는 론문들이 제출되였다.

발표회에서는 《린산염에 의한 논버씨앗처리효과에 대한 연구》, 《고성능이동식종합탈곡기》, 《6마력다기능농기계》, 《논벼불경재배에서 넓은잎나무잎 피복효과에 대한 연구》 등 당의 농업정책관철에서 리론실천적으로 의의가 큰 론문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발표회에서는 우수한 론문들을 내놓은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이번 발표회는 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며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과학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였다.

우리가 만든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사회주의협동벌에 차넘치게 하자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아래 펼쳐지는 자랑찬 변혁

지난 한해동안 전국의 농기계공장들에서 이룩된 성과를 놓고

만 1년이 되였다.

지난해 8월 5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농기계전시장을 돌아보신 영광의 그날로부터 한해가 된 오늘 농기계생산자들의 긍지와 자랑은 하늘에 닿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기계공장들에서 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능률높은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사회주의협동벌마다 우리가 만든 농기계들의 동음이 높이 울리게 하여야 합니다.》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영광의 5월을 향한 충정의 7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200일전투의 날과 달을 혁혁한 성과로 빛내여나감으로써 20여종의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연구개발제작한데 이어 대량생산을 위한 계렬생산준비 활발!

승리와 락관으로 가슴부풀게 해주는 소식이다.

우리 식의 다용도화, 로력절약형기계

우리의 농기계생산자들이 만든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보면 특징적인것이 있다. 그것은 비록 기계명은 간단해도 여러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수 있도록 다용도화되고 일능률을 높일수 있게 제작된 로력절약형기계들인것이다.

한해전 8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기계전시장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 다용도화된 농기계들을 창안제작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사실 각지 현결농기계공장들에서 인차 세계적수준의 농기계생산과제를 받게 된다는 소식에 접했을 때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당황하였다. 세계적수준의 농기계를 만들자면 CNC설비와 같은 현대적인 기계들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 그들의 견해였다. 하지만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앞에 자신들을 세워보고 주저없이 결심하였다.

견본모방형이 아니라 개발창조형기계, 로력절약형기계, 일능률을 높일수 있는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생산하자!

기적창조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해주련결농기계공장에서 만든 파종기를 놓고보자.

파종기라고 하면 누구나 씨뿌리기만 하는 기계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파종기는 밭갈이와 씨레질, 수평고루기, 비료주기, 씨뿌리기, 복토작업을 진행하여 700여명의 로력을 절약할수 있는 다용도화, 다기능화된 현대적이고 능률높은 농기계이다.

제작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회전원반파종장치부분제작에서 실패가 거듭되였다. 그러자 제작상 편리하게 구조를 변경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그렇게 하면 땅다루기공정의 작업능률이 조금 낮아질뿐이였다. 하지만 생산자들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우리 힘으로 기어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현대적인 농기계를 생산하자!

모두가 이런 각오로 분발해나섰다. 결과 이들은 원인을 밝혀내고 기술성능상의 요구대로 다용도화된 파종기를 생산해내고 야말았다.

신원, 함흥련결농기계공장에서 만든 강냉이파종기 역시 다를바 없다. 이곳 생산자들은 전 본농기계에 파종분체들이 틀에 고정된것을 평행4변형기구를 도입하여 매 파종분체들이 토양기복에 순응할수 있게 함으로써 파종깊이와 복토두께의 균일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특히는 종자편금장치에 수감부를 설치하여 빈포기를 없앨수 있게 하고 복토날 등을 더 설치하여 작업의 편리성을 보장한 결과 1대의 기계로 93명의 파종로력을 대신할수 있게 하였다.

곽산, 해주련결농기계공장의 생산자들이 만든 후치기 역시 그렇다. 후치기작용체들이 토양기복에 순응할수 있게 평행4변형기구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김매기와 북주기를 다할수 있도록 작용체를 바꾸어 설치할수 있게 함으로써 다용도화된 농기계로 완성하였다. 결과 후치작업에서 37마리의 부림소를 대신할수 있게 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의 프락또르출력에 맞게 설계제작하여 들쉬갈이와 흙밟무스러뜨리기, 수평고루기를 동시에 진행할수 있도록 제작한 종합토양관리기계는 또 얼마나 능률적인가.

어찌 그뿐이랴. 강냉이오사리벗기기와 낟알털기, 정선을 동시에 하는 탈곡기와 소형원동기를 리용하여 토양판리와 씨레치기, 풀수확을 비롯한 여러가지 작업을 수행할수 있게 한 소형다기능농기계, 각종 분쇄기, 온실토양판리기계…

우리 식의 새형의 농기계들을 제작하던 나날에 농기계생산자들모두가 딴사람이 되였다. 세계적수준의 그 어떤 농기계도 척척 만들어낼수 있는 배짱과 기술을 가진 정신력의 최강자, 창조의 능수로 자라났다.

계렬생산돌격구령을 우리에게 먼저!

전국의 농기계공장들이 계렬생산준비로 들끓고있는 지금 농기계생산자들의 가슴마다에 끓어넘치는 하나의 열망이 있다.

이 한몸을 다 바쳐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을 하루빨리 꽃피움으로써 우리가 만든 훌륭한 농기계들이 사회주의협동벌에 짝 차넘칠 그날을 앞당기자!

활화산같은 열망을 안겨주신분은 우리 원수님이시였다.

지난 5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계설비전시장을 기쁨속에 돌아보시면서 현대적인 농기계계렬생산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본격적으로 내밀어 빠른 기간에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60~70%수준에 올려세울데 대한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시였다.

전국의 농기계생산자들은 즉시 이렇게 화답해나섰다.

8월 15일까지 계렬생산을 위한 지구장비생산을 100%수행하고 농기계생산돌격전에 진입하자. 계렬생산돌격구령을 우리에게 먼저 내리라!

해주련결농기계공장 로동계급이 그 앞장에 섰다. 자기 공장이 선봉에 서야 나라의 농기계부문에서 비약이 일어난다는 자각으로 떨쳐나선 이들은 목표를 더 앞당겨 세우고 파종기, 분무기, 자행식분무기, 후치기를 계렬생산하기 위한 410여개의 지구장비생산을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중요설계만 해도 300건이상, 설계도면은 2 000여장이상, 아름찬 과제였다. 하지만 몇달이 걸려야 한다던 종전의 관례를 깨고 설계전투를 성과적으로 끝냈다.

온 공장이 그 기세로 지구장비생산전투에 착수하여 프레스와 원통연마반, 평면연마반을 효과적으로 개조함으로써 지구장비생산을 다그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분에 넘치는 치하를 받아안은 신원련결농기계공장의 생산자들은 현대적인 농기계들의 계렬생산준비와 7종의 농기계생산전투를 동시에 전개하였다. 난관이 걸음마다 앞을 막아나섰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였던가.

농기계생산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싸우는 고지에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을 보내주자는 구호를 들고 손으로 피대를 돌려 전시생산을 보장한 근자리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

무서운 힘이 폭발하였다. 이들은 선반과 볼반 등에 필요한 가공지구를 제작설치하면 가능하다는 착상을 하고 실천에 옮기였다.

비약은 농기계와 설비생산전투장에서도 일어났다. 그 나날에 이들은 벼종합탈곡기, 강냉이종합탈곡기, 자행식분무기, 기름골수확기를 비롯한 7종의 많은 농기계들을 생산하여 농촌들에 보내주었다. 기술자, 기능공대렬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실천과 결합하여 완강하게 내밀면서 짧은 기간에 모즐10치절반, 250t크랑크프레스를 비롯한 많은 설비들을 제작하거나 개조완성하였다.

우리의 농기계생산자들은 마음먹으면 무엇이나 척척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수로 자라났다.

화산련결농기계공장에서도 200여개의 지구장비생산이 마감단계에 들어섰다. 청진련결농기계공장에서는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20대의 토지개간용원반써레를 제작한데 이어 깊이갈이보습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충정의 200일전투기간 2종의 새 축산설비를 연구개발하고 즉당기, 쟁창성형기 등 수백대의 기계를 생산보장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철야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남시축산기계공장, 능률높은 분무기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강서분무기공장, 지레대식분무기 100여대를 만들고 수십대의 동력식뽐프생산을 다그치고있는 북청파수기계공장…

모든 농기계공장들에서 계렬생산에 돌입할 만단의 준비를 끝내가고있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에 자기의 힘과 기술로 계렬생산한 현대적인 각종 농기계들의 동음이 사회주의협동벌에 높이 울려퍼질 그날을 향하여 총공격, 총매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의 보고를 드릴 그날을 향하여 힘차게!

본사기자 래명호

평양농기계작업소에서

힘있게 추진되는 설비현대화

평양농기계작업소에서 설비현대화에 큰 힘을 넣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다그쳐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여야 합니다.》

농업전선의 병기창을 지켜섰다는 높은 자각을 심장에 새긴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충정의 200일전투기간에 설비현대화를 적극 다그쳐 능률높은 농기계생산과 수리에서 비약을 일으킬 목표를 세웠다. 한낱호, 박근찬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전류안정용접기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부터 설비현대화의 불길을 지펴올렸다.

이들은 일반용접기에 비하여 40%이상의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작업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새형의 용접기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책임기사 윤룡학동무는 백경철, 장명훈동무를 비롯한 4.15기술혁신돌격대 대원들과 함께 전투를 벌려 작업소의 실정에 맞는 전류안정용접기를 성과적으로 제작완성하였다.

리용해본 결과는 좋았다. 1대의 용접기를 놓고 동시에 2명의 용접공이 작업할수 있어 그 능률이 두배나 높아졌다. 무게가 종전보다 가벼워져서 필요한 장소로 손쉽게 옮겨가며 리용할수 있어 농기계생산과 수리에서 효과적이였다.

제작과정을 통하여 이곳 종업원들은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투쟁한다면 얼마든지 자체의 힘으로 빠른 기간에 설비현대화를 실현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일군들은 높아진 대중의 열의에 맞게 앞장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종업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종업원들모두가 설비현대화의 주인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자각을 안고 누구나 한가지이상의 창의고안을 하기 위한 기술혁신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그들은 설비개조를 위하여 창조적지혜를 합쳐나갔다.

결과 선반기들에 수자조종측정체계를 받아들여 가공하는 부속품들에 대한 측정을 보다 과학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농기계생산과 수리에서 큰 은을 내고있다.

또한 유압절단기의 유압계통을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그 능률을 두배이상 높이기 위한 사업도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 프레스, 철판절단기를 비롯한 이미 있던 설비들을 새로운 설비들로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다그쳐지고있다.

설비현대화가 적극 추진되는 속에 작업소에서는 종합밭갈이기계, 두둑짓는기계, 후치기를 제작완성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싸우는 고지에 더 많은 탄약을 보내주자는 구호를 들고 손으로 피대를 돌리며 전시생산을 보장한 근자리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을 발휘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각오를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설비현대화에서 계속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박영진

기술혁신과 새 기록

◎ 해주뜨락또르부속품공장에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으며 나아가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해주뜨락또르부속품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만리마선구자의 영예를 떨쳐 각오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지배인 변호남동무를 비롯한 공장일군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당창건기념일까지 26종에 3만 3 300여개의 뜨락또르부속품을 생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면서 각 직장, 작업반들에서는 많은 자재와 로력이 요구되였다. 기술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었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기술혁신을 공장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제기하고 대중적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쟁을 광범히 벌리였다. 결과 많은 시간과 로력,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뜨락또르부속품생산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낄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도입되였다.

공장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이 창조적지혜를 합쳐 만들어낸 마찰절단기를 놓고도 잘 알수 있었다. 이 기계는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절단날이 각강과 마찰하면서 나는 높은 열에 의해 강재를 쉽게 절단할수 있게 한다.

지난 시기의 방법으로는 각강을 하루동안에 30여토막밖에 절단하지 못하였다. 여러 공정을 거쳐야 하였으므로 많은 시간과 로력이 들게다가 자름면이 매끈하지 못하여 적지 않은 자재를 랑비하였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들은 마찰절단기를 창안제작함으로써 종전보다 작업능률을 6배로 끌어올리게 되였다. 결과 각강을 절단하는 공정이 단축되고 시간과 로력은 물론 종전보다 강재를 25%나 절약할수 있게 되였다. 마찰절단기를 창안제작하는 과정을 통하여 공장의 로동계급은 자기의 힘과 기술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였다.

이런 성과에 토대하여 공장에서는 각종 부속품들에 대한 열처리를 과학적으로 하여 제품의 질을 종전보다 2~3배로 끌어올릴수 있는 수자식열처리자동온도측정장치도입을 비롯한 더 높은 기술혁신목표들을 세우고 련속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대중의 정신력이 충폭발되는 속에 련일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였다.

주강직장 직장장 리영주동무를 비롯한 로동자들은 뜻밖의 정황으로 저주파유도로가 서게 되자 이글거리는 로를 해체하고 긴장한 전투를 벌려 48시간 걸려야 한다고 하던 로보수를 단 8시간동안에 해제끼였다. 치렬한 경쟁열풍이 휘몰아치는 속에 공무동력직장의 기대공들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한주일동안 수행하여야 할 과제를 3일동안에 끝내였다.

이 공장의 경험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자기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부단히 새것을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간다면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전명일

종합토양관리기계 계렬생산준비 활발

대동군농기계작업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입니다.》

대동군농기계작업소에서 종합토양관리기계의 계렬생산준비에 박차를 가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 기계는 들쉬갈이와 씨레치기, 수평고루기작업을 동시에 할수 있는 다용도화된 기계, 로력절약형기계이다.

종전에는 뜨락또르운전수가 하루에 갈이를 평균 2~2.5정보밖에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농기계를 리용하면 들쉬갈이와 씨레치기, 수평고루기를 동시에 진행할수 있을뿐아니라 연유소비량도 대폭 줄일수 있었다.

깊이갈이를 하기때문에 작물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토양의 물보유능력을 높일수 있다. 이 기계를 리용하면 적어도 9~12%의 알곡을 증수할수 있다.

우리 당이 바라는대로 농촌기계화의 전초병으로서의 임무를 다할 자각을 안고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기 힘과 기술로 능률높은 농기계를 계렬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달라붙었다.

이들은 우선 이 기계의 성능을 좌우하는 직결장치와 들쉬갈이보습, 경사라선띠식균형씨레 등 중요부분품들의 가공을 위한 기술지표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농기계들의 중요부분품들을 전문생산할수 있는 공정들을 하나하나 꾸려나갔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10종에 수십개에 달하는 지구장비들에 대한 제작을 성과적으로 끝냈다.

기계부속품들을 전문적으로 가공할수 있는 생산공정들을 꾸려놓고 본체제작에 필요한 지구장비와 각종 규격의 공구들을 마련해놓았다.

농촌기계화의 전초병이라는 자각이 이런 성과를 안아온것이였다.

글 본사기자 정성일
사진 본사기자 리진명

제31차 철도성 과학기술축전 진행

제31차 철도성 과학기술축전이 2일부터 4일까지 철도성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축전에는 국가과학원 철도과학분원, 평양철도종합대학, 평양철도국,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현장일군, 3대혁명소조원들이 참가하였다.

축전은 기계, 금속, 건설분과, 전기, 자동화분과, 정보, 운영분과로 나뉘여 전시회와 발표회, 새 기술교류형식으로 진행되였다.

축전에는 철도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100여건의 과학기술론문들과 연구성과자료들이 제출되였다.

참가자들은 철도현대화의 불길을 지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렬차운행조직과 방법을 과학화, 합리화하고 현대적인 철도수송수단들을 개발생산하며 철길의 중량화, 고속도화를 추진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한 연구성과들을 소개하였다.

북창지구 화력탄수송의 정보화, 대경간 해상철도다리구조, 경사식자동부림화차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료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론문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축전은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추동하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였다.

우리 나라가 기후변화에 관한 빠리협정에 가입

우리 나라가 1일 빠리협정(기후변화에 관한 협정)에 가입하였다.

협정가입문건이 수탁자인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되였다.

빠리협정(기후변화에 관한 협정)은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의 빠리에서 진행된 유엔기후변화대회에서 채택되였으며 지구평균기온이 공업화이전시기인 1850년대에 비해 2℃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새 제온실가스방출량을 최대한 줄이는것을 목표로 하여 모든 나라들이 자원적인 온실가스축감계획을 세우고 국제적협조를 강화할것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빠리협정 당사국으로서 기후변화문제해결과 지구환경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자연에네르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사리원탄공장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백년숙적의 반인륜적죄악을 무마시키려는 역적무리들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대변인담화

지금 온 겨레는 내외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지원》을 위한 《화해, 치유재단》이라는것을 조작해낸 박근혜패당에 대한 치솟는 저주와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피뢰패당의 이번 망동은 일본의 천인공노할 죄악을 덮어버리려는 반민족적행위이며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전체 조선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하기에 남조선의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은 물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층이 《재단》설립은 불법이며 성노예문제 《합의》는 전면무효라고 격분을 터뜨리면서 강력히 반대배격해나서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비롯하여 아시아와 세계 여러 나라의 수많은 녀성들을 강제로 전쟁마당에 끌고 다니며 침략군의 성노리개로 만들고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녀성들을 잔악무도하게 학살한 특대형반인륜범죄이다.

지금도 성노예피해생존자들은 왜나라 쪽발이들에게 강제로 끌려가 녀성의 존엄과 인격을 무참히 짓밟히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한 뼈에 사무친 원한을 안고 몸부림치며 일본의 과거죄악을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다.

온 겨레와 국제사회가 일본이 저지른 잔악무도한 성노예범죄에 대해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배상할것을 요구하고있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패당은 지난해말 일본과 외교장관회담이라는것을 벌려놓고 일본이 그 무슨 《위안부지원재단》이라는데 몇푼의 돈을 대는 대가로 성노예범죄에 대해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을 보기로 밀약하는 쓸개빠진 역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그리고 온 겨레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놀음을 벌려왔으며 이번에 일본이 지불하는 돈에는 《배상금의 성격이 있다.》느니 뭐니 하고 저들의 천인행위를 합리화하면서 끝끝내 《재단》설립을 강행하였던것이다.

지금 피뢰패당은 《재단》설립으로 성노예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명예와 존엄회복》을 위한 제기가 마련된듯이 희떱게 떠들어대고있다.

사실 일제에 대한 우리 녀성들과 온 민족의 피맺힌 원한은 왜나라 쪽발이들이 열백번 사죄한다고 하여도 절대로 풀릴수 없고 천문학적인 돈으로 배상한다고 하여도 덮어버릴수 없는 문제이다.

피뢰패당의 이번 《재단》조작책동은 성노예피해자들의 가슴속에 《치유》는 고사하고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였으며 박근혜역도가 저지른 또 하나의 반민족적대죄악으로 력사에 기록되게 되였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저들이 대는 돈이 배상금이 아니며 남조선의 성노예피해자들과 반일단체들이 일본의 성노예범죄를 고발하여 일본대사관앞에 세운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여야 돈을 지불할수 있다고 하면서 심히 오만무례하게 놀아대고있다.

이러한 뻔뻔스러운 일본과 작당하여 《치유》니, 《화해》니 하며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아물수 없는 상처에 또다시 칼질을 해대고 과거 일제의 만고죄악을 덮어버리려는 박근혜패당이야말로 천추에 용납 못할 현대판 《을사오적》의 무리가 아닐수 없다.

피뢰패당의 《재단》조작놀음은 일본과의 정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여 3각군사동맹조작을 다그치려는 미국의 끈질긴 독촉과 막후조종에 따른것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주구인 박근혜역도의 매국배족적본색을 더욱 낱낱이 폭로해주고있으며 그것은 역적패당의 추악한 사대매국정책의 필연적산물이다.

박근혜의 이번 천인매국망동은 지난 세기 60년대 일본으로부터 몇푼의 딸라를 받고 치욕스러운 일본남조선《협정》에 도장을 찍은 제 애비 박정희역도를 신통히도 방불케 하고있다.

얼마전에는 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싸드》를 끌어들여 남조선을 외세의 대결장으로 완전히 내맡기는 극악무도한 천미역적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고 이번에는 또 저주로운 《화해, 치유재단》이라는것을 조작하여 민족의 존엄을 짓밟아뭉개는 천인매국행위를 서저른 전대미문의 사대매국행적은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제 애비의 천일유전자를 넘겨받은 박근혜와 같은 만고역적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언제 가도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없고 민족이 편할수 없다.

온 겨레는 매국역적질에 환장한 박근혜패당을 단호히 쓸어버리고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만고죄악을 결산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해나서야 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온 겨레와 함께 일본이 저지른 성노예범죄 및 강제련행을 비롯한 온갖 반인륜적죄악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이다.

주체105(2016)년 8월 4일
평양

제7차 전국의료기구전시회 진행

제7차 전국의료기구전시회가 2일부터 4일까지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였다.

전시회에는 나라의 의료기구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각지 공장, 기업소, 교육, 과학연구기관들에서 창안제작한 수많은 의료설비와 기구, 재료들이 출품되였다.

전문의료기구생산단위들을 비롯한 보건성산하 공장들과 각급 병원들에서 창안제작한 9공이회전식알약기, 생물량자공전분석기, 휴대용심전계 등의 설비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등 교육,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라선식뇌CT, 치과임플란트공구, 휴대용심장박동조종기와 같은 현대적인 의료기구들을 전시하여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기계공장들에서 의료설비를 한가지씩 만드는 운동을 벌림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받들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의료용산소병, 봉합실, 소석고, 부목 등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치료에 이바지할 다양한 제품들을 출품하였다.

전시회기간 주체104(2015)년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의 의료기구생산정형에 대한 총화가 있었으며 의료기구생산단위들사이의 과학기술토론회, 경험교환을 비롯한 사업들이 있었다.

폐막식이 4일에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 출품단위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와 개인들에게 상장이 수여되였다.

전시회는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 식의 의료기구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조선중앙통신】

핵전쟁의 화근을 뿌리채 들어내야 한다

지금 나라의 평화와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지향은 해내외에서 뜨겁게 분출되고있으며 전민족적규모에서 통일애국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계기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를 진행할데 대한 우리 공화국의 제안에 화답하여 해외의 여러 지역들에서 준비위원회들이 조직되고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이 련석회의의 성과적개최를 위해 투쟁을 벌리고있는것은 겨레의 조국통일지향이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우리 겨레의 통일열망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위험은 날로 증대되고있으며 이로 하여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앞길에도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침략적인 세계제패전략과 대조선압살정책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전쟁장비반입책동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근원이다.

최근 미국은 남조선에 각종 핵전쟁장비들을 련속 끌어들이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미국이 괴뢰패당과 공모결탁하여 남조선에 《싸드》를 끌어들이기로 한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이런 핵전쟁장비반입책동이 단순히 《싸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미국은 얼마전 일본 오끼나와의 가데나공군기지에 있던 《패트리오트 3》요격미싸일 1개 포대를 남조선의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미제침략군기지에 전개하였다.

이보다 앞서 미국은 부산항에 끌어들였던 핵동력잠수함 《미찌씨피》호와 초대형전략핵잠수함 《오하이오》호를 조선반도주변해역에 항시적으로 배치하기로 하였는가 하면 남조선주둔 미군에 요격고도가 현재 보유하고있는 《패트리오트 3》요격미싸일의 2배나 되는 개량형 《패트리오트 3 MSE》를 추가로 배비할것이라고 광고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남조선에 미제침략군의 전략핵폭격기들이 때없이 날아들어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하고있는것도 결코 비밀이 아니다. 이로 하여 지금 남조선은 미국의 북침핵전쟁전초기지로, 극동최대의 핵전쟁발원지로 더욱 악명을 떨치고있다.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일대에 핵전쟁장비들을 닥치는대로 끌어들이면서 전쟁불장난소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것은 가뜩이나 긴장한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발발국면에로 더욱 바싹 몰아가면서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군비경쟁을 심화시키는 매우 엄중한 후과를 빚어내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전쟁장비반입책동은 우리에 대한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핵선제공격기도의 뚜렷한 발로이다. 얼마전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주요전략적핵심시설들을 불의에 동시타격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정밀공습작전》계획을 공개한데 이어 남조선에 각종 핵선제타격수단들을 계속 끌어들이고있는것도 그것을 립증해준다. 조성된 현실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을 끝장내는것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선차적인 문제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미국의 발광적인 핵전쟁장비증강책동을 저지시키고 북침핵전쟁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방도는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는것이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을 현지에서 집행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핵전쟁위협을 고조시키는 근원으로, 악적존재로 되고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핵무장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남조선을 거대한 북침핵전초기지로 전락시키였다.

남조선의 도처에 널려있는 미군기지들에 수많은 핵무기가 전개된것은 누구나 잘 알고있는 사실이다. 미제호전광들은 그 무슨 《순환배치》니 뭐니 하는 갖은 구실을 내대며 각종 최신무기들과 전쟁장비들, 새로운 침략군병력을 남조선에 체계적으로 끌어들이고있다.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남조선에 한지군과 페스트균까지 비법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조선민족멸살을 노린 범죄적인 생화학전준비책동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괴뢰호전광들과 함께 감행하는 북침전쟁연습책동은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새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괴뢰군과 함께 해마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각종 대규모적인 북침전쟁불장난소동들을 년례적인 행사처럼 벌려놓고있다. 그리면서도 뻔뻔스럽게 저들의 북침합동군사연습에 대해 그 무슨 《방어훈련》이니 뭐니 하고 정당화해나서고있다.

하지만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괴뢰호전광들과 함께 감행하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의 엄중성과 위험성은 이미 날날이 폭로되였다.

우리 공화국의 적극적인 평화애호노력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성의있는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과 긴장이 해소되지 못하고 날로 격화되고있는것은 미제침략군이 남조선괴뢰군과 함께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 북침전쟁연습들의 필연적결과이다.

남조선전역에 방대한 살인전쟁장비들을 쌓아놓고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을 북침전쟁도발에로 내몰고있는 미국이 새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는것은 시간문제로 되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면서 조국강토에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지 않고서는 우리 겨레가 언제 가도 마음편히 살아갈수 없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야말로 핵전쟁화약고에 놓인 시한탄이며 이 침략무리들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키는것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다.

지금 우리 민족은 외세의 침략책동을 물리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느냐 아니면 외세의 롱락물이 되여 핵전쟁의 참화를 뒤쓰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이미 지난 세기 50년대에 미제에 의하여 전쟁의 참화를 입은 우리 민족은 신성한 조국강토가 미국의 핵전쟁마당으로 되는것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려고 미쳐날뛰는 미제침략군과 그와 야합한 남조선호전세력의 군사적도발책동에 결단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아시아대평양지배전략실현의 돌격대가 되여 겨레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지체없이 철수시키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온 겨레는 애국의 열정과 투지를 안고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키기 위한 거족적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임무를 다해야 할것이다.

리 성 호

남조선 각계층의 격찬
《승리는 이북의 전통》

년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에서 승리에 승리를 거듭해온 빛나는 전통을 민족사에 찬란히 아로새겨주신 위대한 백두령장들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경모심이 날로 뜨겁게 분출되고있다.

새 력사연구회의 한 성원은 글에서 1950년대 6.25전쟁은 제국주의대적과 건국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이북과의 첫 대결이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오만해질대로 오만해져 《세계헌병》으로 자처하던 제국주의괴수, 110여차례의 전쟁에서 상승만을 자랑해온 미국에 맞선 이북에 세인은 우려의 눈길을 보냈다.

그러나 100만 판동군을 삼대베듯 쓸어눕히신 김일성장군에서 이끄시는 이북은 수백만의 침략군을 죽음의 《함정골》에 처박았다. 침략군의 물량적, 기술적우세를 정신도덕적, 전략전술적우월성으로 압도하여 미국을 무릎꿇게 하였다.

부산의 한 주민은 3년간의 전쟁에서 북이 이룩한 모든 승리의 근저에는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와 탁월하고 세련된 병근술, 한없이 숭고한 헌신적로고가 깃들어있다고 피력하였다.

력사학교수 리춘석은 7월의 대승을 안아오신 세기의 명장 김일성주석의 출중한 지략과 담력은 천출명장 김정일장군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였다고 하면서 그분께서 7월의 전승을 위대한 선군정치로 찬연히 빛내여오시였다고 칭송하였다.

한 정치학교수는 동서고금의 력사에 제국주의련합세력을 총한방 쏘지 않고 단독으로 눌러버리신 김정일령수와 같은 세계적명장은 일찌기 없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1993년 3월 북미간의 핵대결은 동서대결이 북미대결로 압축된 상황에서 벌어진 력사에 유례없는 세계대전으로 기록되고있다. 그것은 실로 일당백의 대결전이였다. 가장 파국적인 핵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끄신분이 바로 김정일장군이시였다.

언론인 김정민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정식탈퇴를 선언하는 공화국정부 성명에 접했던 그때를 돌이켜보며 당시 북의 성명에서 우리는 백두산장군의 무적필승의 기상과 산악같은 담력앞에 미국의 고립압살전략이 산산조각나는 통쾌한 모습을 보았다고 격찬하였다.

남조선 각계층의 칭송의 목소리는 승리의 한길만 걸어온 우리 공화국이 또 한분의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시여 최후승리의 길로 나가고있는데 대한 격정의 메아리로 크게 울려나오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공개석상에서의 첫 연설》등의 제목아래 언론들은 이북 최고령도자께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열병식에서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라는 진격명령을 내리시였다고 대서특필하였다.

한 언론인은 위대한 선군령장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력타격계획을 최종점토, 비준하시며 미제가 무모한 불집을 한다면 미국본토와 대평양작전전구안의 미군기지들, 이남주둔 미군기지들을 사정보지 말고 타격할데 대해 명명하신것은 미국을 없애버릴 준비가 다 되여있음을 선언하신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였다.

《세계 적지 않은 나라들이 미국의 전횡앞에서 기를 펴지 못하고있을 때 령토가 크지 않은 이북이 날마다 선군승리의 개가를 올리고있으니 이 얼마나 가슴벅찬가.》, 《미국과의 정면대결에서 승산을 본 나라, 미국이 어쩌지 못하고 굽어들게 하는 나라는 오직 이북뿐이다.》. 이것은 서울의 력사학교수, 부산의 재야인사만이 아닌 남조선각계모두의 심장속울림이다.

광주의 한 교수는 선대수령들의 선군정치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김정은최고사령관의 굳센 의지와 담력, 현명한 령도에 의해 미국이 무적필승의 이북앞에 완전히 무릎꿇고 항복서를 바칠때가 반드시 올것이라고 확신을 표명하였다.

한 정치학연구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령도를 받는 이북군은 정의의 군대, 애국의 군대이다.

군사전문가들이 《북미전쟁은 100시간안에 북의 통쾌한 승리로 끝날것》이라고 평했듯이 이북군의 번개같은 반격에 침략군은 초전피멸되고 막강한 전략무기의 타격에 미국의 심장부는 화염에 휩싸여 오만한 악의 제국은 숨을 거두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온 남녘땅을 휩쓰는
《싸드》배치반대투쟁의 불길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고고도요격미싸일 《싸드》배치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이 온 남녘땅을 휩쓸고있다.

서울에서 참여련대, 민주로총, 전국녀성련대, 민련 등 46개 시민단체들의 시국회의가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싸드》는 결코 남조선민중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체계도,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도 아니다. 미국 미싸일방위체계의 일부일따름이다. 《정부》자체도 최근 《싸드》가 수도권을 방어할수 없다는것을 시인했다. 《싸드》배치는 주변나라들을 겨냥한 미국주도의 미일남조선군사협력체제가 공식화되는것을 의미한다고 폭로하였다.

회의에서는 《싸드》결정을 철회시키고 미국미싸일방위체계에 남조선이 편입되는것을 막기 위한 범국민행동을 벌릴데 대한 결의문이 발표되였다.

서울시내 곳곳에서 48시간 대학생긴급릉성과 시위, 《싸드》배치반대 청년학생긴급행동 성원들의 집회 등 청년학생들의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이들이 웨치는 《국민생존권 위협하는 싸드배치 반대한다!》,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이 땅의 평화!》, 《한미굴욕동맹 폐기!》 등 분노의 함성이 거리들에 울려퍼지고있다.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싸드》배치반대 대구, 경북대책위원회는 《새누리당》 경상북도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땅 어디에도 《싸드》를 배치할 부지는 없다고 선언하였다.

부산에서도 민주부산행동, 《부산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주최로 집회가 열리였다.

경상남도 창원, 진주, 김해, 량산 등지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진주본부, 경남진보련합,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남비상시국회의》, 《마산창원진해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과 시위, 집회, 선전활동 등이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있다.

경기도와 전라남도 등지에서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생존권을 짓밟게 될 《싸드》배치를 군사작전처럼 결정한 박근혜패당의 사대매국적, 반민주적행위에 분노한 각계층의 항의투쟁이 고조되고있다.

한편 남조선언론들은 《싸드》가 안전하다느니 뭐니 하고 떠드는 괴뢰보수패당의 주장에 침을 뱉으면서 《싸드》의 위험성을 폭로하는 여론전을 벌리고있다.

남조선신문 《헤랄드경제》는 이미 《싸드》가 배치된 괌도주민들의 피해실태를 공개하였다.

신문은 국방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 지역 주민들이 《싸드》의 전자기파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있다는것이 밝혀졌다고 전하였다.

지금도 서명운동, 선전활동, 대규모집회, 기자회견, 시위 등 다양한 형태로 온 남녘땅을 휩쓰는 격렬한 항의투쟁은 인민들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이 사대매국공조에만 매달리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남녘민심의 거세찬 분노의 폭발이다.

【조선중앙통신】

민심을 잃은 독재자의 가련한 신세

지금 괴뢰집권자 박근혜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심복졸개들과 《새누리당》내부의 부정추문사건들이 련속 폭로되여 각계에서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그로 하여 집권기반까지 뒤흔들리고있기때문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에서는 최근 《권력의 실세》로 불리우며 온갖 전횡을 부리던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라는자가 개입된 권력형부정부패사건의 전모가 드러나 여론이 죽가마끓듯 하고있다. 설상가상으로 이와 때를 같이하여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당시 《새누리당》내의 친박계가 꾸미였던 《공천》음모의 진상까지 폭로되여 보수집권세력에 대한 남조선각계의 환멸과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지난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내에서 친박계와 비박계가 치렬한 권력쟁탈전을 벌렸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암독사와 같은 청와대안방주인의 추동에 따라 비박계인물들에게 사정없이 칼질을 한 친박계의 《공천학살》놀음에 허를 내두르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여론화되고 민심의 눈초리가 청와대에로 쏠리자 박근혜의 측근들은 뻔뻔스럽게도 저들의 불법적인 《공천》개입을 부정하며 시치미를 뗐었다.

그런데 이번에 폭로된 자료에 의하면 당시 친박계가 비박계를 《국회》의원선거에 후보로 내세우는것을 거의나 배제한 《새누리당》의 《공천학살》놀음은 사실상 청와대의 배후조종에 따른것이였다.

얼마전에 《새누리당》의 《공천》과 관련한 통화록음자료가 공개되였는데 거기에는 박근혜의 측근인물이 《대통령의 뜻》이라느니, 《대통령의 사람의 지역》이라느니 뭐니 하고 위협공갈하면서 어느 한 사람의 《국회》의원후보등록을 강압적으로 취소시킨 내용이 들어있다.

이것이 공개되는 바람에 박근혜역도의 《공천》개입음모의 일단이 드러났으며 이로 하여 《새누리당》뿐아니라 청와대도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였다.

경제파국과 민생파탄으로 개탄하는 소리가 자자한 판에 사대매국적인 《싸드》배치결정으로 하여 민심의 강력한 항의규탄을 받고있는 박근혜패당이 련속 터져나오는 부정추문사건들에까지 휘말렸으니 얼마나 바빠났겠는가.

괴뢰역도가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정부패당동을 두둔하면서 《비난을 피하지 말라.》느니, 《대통령을 흔들지 말라.》느니 하고 련일 발버둥질을 치고있지만 민심의 비난은 날로 더욱 고조되고있다. 이런 속에 《새누리당》의 비박계패거리들은 친박계핵심들과 박근혜가 탈당해야 한다고 로골적으로 압박하고있다.

민심의 요구는 안중에도 없이 독단을 부리며 오만하게 날뛰던 박근혜역도는 이제는 자기 집에서조차 쫓겨나야 하는 가련한 신세에 처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그 누가 아니라 다름아닌 자기자신이 스스로 불러온것이다.

일이 이쯤 되였으면 독재통치, 온갖 반역적악정의 대명사인 박근혜역도의 운명이 얼마나 불행한것으로 될것인가 하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장 임 향

폭행과 범죄로 썩어가는 식민지고용군

야욕강식과 패륜패덕으로 썩어가는 미국의 식민지고용군인 남조선괴뢰군내에서 각종 군기문란현상들이 꼬리를 물고 빚어지고있다.

남조선의 《련합뉴스》가 전한데 의하면 얼마전 남조선강원도의 한 괴뢰군부대에서 2명의 장교가 하급장교들에게 폭력을 가한 사건이 폭로되였다. 이자들은 하급장교 9명을 휴게실에 모이게 한 다음 몽둥이로 그들을 위협하고 책상과 의자를 던지면서 마구 구타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어느 한 해병대부대의 부사관이 사병을 길가에서 아무런 리유도 없이 구타하여 쓰러뜨린 사실, 신병훈련을 받던 한 사병이 육체적부담을 못이겨 즉사한 사실, 장교들이 술을 먹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친 사실 등 괴뢰군의 부패상을 보여주는 사건들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남조선에서 《히가만은 인권유린장》으로 불리우는 괴뢰군내에서는 집단구타와 각종 가혹행위에 견디지 못한 사병들이 절망과 고통속에 몸부림치다가 종당에는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지난 4월말 외출을 한 남조선강원도 화천군의 한 괴뢰군부대 사병이 부대로 돌아가지 않고 주변야산의 나무에 목을 매고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5월초에는 한 특공려단의 21살 난 괴뢰군사병이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것은 괴뢰군내에서 최근에 벌어진 사건들에 불과하다. 괴뢰군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자살자수는 전체 괴뢰군사망자수의 64.6%에 달하였다.

괴뢰군장교들과 사병들의 성범죄사건도 끊기지 않고있다. 지난 6월 부산에서는 술에 취해 동료의 애인을 성폭행한 괴뢰군소위가 붙잡혔고 청주의 한 술집에서는 괴뢰군사병이 10대의 녀성을 강제로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남조선괴뢰군에서는 녀성들이 참을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당하고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남조선사회가 빚어낸 실업난, 생활난의 희생물들이다.

자료에 의하면 괴뢰군내부에서 녀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은 해마다 증가해왔으며 가해자들의 대부분은 장교들이였다고 한다.

이처럼 괴뢰군내부가 폭력과 각종 범죄사건으로 썩고 병들어가고있지만 그 실태에 대해 공개되는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괴뢰국방부가 지난해 《군인징계렙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군기문란행위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떠들어댔지만 그것은 빈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괴뢰군부패거리들은 남조선각계의 규탄의 목소리를 녹잦히기 위해 군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들을 은폐하거나 범죄자들을 비호하는데 급급하고있다.

남조선에서 괴뢰군이 폭력과 범죄의 란무장으로 전락된 속에 수많은 청년들이 군복무를 기피하는것이 하나의 풍조로 되고있는것은 당연한것이다.

사병들을 북침전쟁의 도구로만 여기는 반역통치배들이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있는 한 괴뢰군내부가 온통 썩고 병들어가는것은 절대로 피할수 없다.

김 철 남

완강한 저항에 부딪치고있는
오끼나와주둔 미군기지문제

일본에서 오끼나와의 미군기지문제가 정계, 사회계의 첨예한 론의거리로 제기되고있다. 주일미군지위협정의 개정 및 미군기지의 철수를 주장하는 현지주민들의 요구가 강력해지고있으며 여기에 일본 각계의 군중이 합세해나서고있다. 반면에 정부는 이러한 민심에 등을 돌려대고 상전인 미국의 비위를 맞추느라 여념이 없다.

결국 오끼나와현과 정부사이에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가고있다.

오끼나와현 기노완시의 후텐마미공군기지이설문제가 기본초점으로 되고있다.

오끼나와현에서는 기지를 현밖으로 옮길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있으며 정부에서는 현내이설을 고집하고있다.

현지당국과 주민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하여 현내 미군기지이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데 약이 오른 정부는 오끼나와현 지사를 상대로 재판소에 소송까지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현에 있는 미군의 훈련장에서 직승기피탄폭장공사를 벌려놓는 등 강권적인 자세로 나오고있다.

여론들은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국내에서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켜 일본에 주둔하고있는 미군기지전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사태를 불아올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원래 후텐마미공군기지이설문제는 오끼나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였다.

온갖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는 주일미군기지철폐를 요구하는 오끼나와현 주민들을 비롯한 일본의 민심에 못이겨 미국과 일본정부는 일련의 미군기지배비변경계획을 발표하였다. 여론을 녹잦히고 미군기지의 존재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술책이였다. 여기에 후텐마미공군기지의 《반환》문제가 포함되였다.

2006년에 일본정부는 미국과 쓱력공론을 벌린 끝에 후텐마미공군기지를 현외로가 아니라 현내의 나고시 헤노꼬로 옮긴다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때로부터 후텐마미공군기지의 현내이설을 반대하는 오끼나와현과 정부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정부가 후텐마미공군기지의 현내이설을 강행추진하려 하면서도 아직까지 실현하지 못하고있는것은 오끼나와현의 반발이 매우 거세차기때문이였다.

이러한 때경하에 최근시기 오끼나와현의 주민들속에서는 항의시위가 매일과 같이 벌어졌다. 지난 6월에는 6만 5 0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오끼나와현으로부터 미군기지를 당장 철수시킬것을 요구하여 집회를 벌렸다. 현지당국은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반영하여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조사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현내 정객들이 앞장에서 후텐마미공군기지의 현내이설을 반대하고 주일미군지위협정의 개정을 요구하여 들고일어났다. 오끼나와현 지사는 후텐마미공군기지의 이전지로 설정된 헤노지역에 대한 매립승인을 취소하였다.

그러자 일본정부는 현지사가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느니, 위법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오끼나와에서의 미군기지문제는 비단 후텐마미공군기지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다.

1945년 6월 류큐렬도를 강점한 미국은 1951년에 대일단독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오끼나와를 비롯한 류큐렬도에서의 모든 행정, 립법, 사법권한을 넘겨받았으며 오끼나와를 극동과 아시아침략을 위한 최대의 군사기지로 전변시켰다.

주일미군시설의 70%이상이 오끼나와에 집중되였다. 이것은 곧 오끼나와주민들이 미군기지로 인한 불행을 그 어느곳에서보다 더 많이 강요당해야 했던 리유로 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 《오끼나와반환협정》이 체결되고 오끼나와가 일본에 반환되였지만 미군의 강점지로서의 종래의 지위와 성격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

일본땅에 둥지를 튼 모든 미군기지와 마찬가지로 오끼나와에 존재하는 미군기지들도 치외법권적인 주둔군의 명지였다. 오끼나와현에 있는 미군기지들은 불행의 화근, 범죄의 서식장으로 지난 수십년간 현지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였다. 미군비행기의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때없이 발생하는 미군비행기사고는 미군기지의 위험성을 더해주었다. 더우기 주둔미군에 의한 각종 범죄행위들은 오끼나와현 주민들에게 가슴아픈 상처를 계속 안겨주었다.

살인, 강간, 폭행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오끼나와주둔 미군기지는 《범죄의 대본영》으로 락인찍혔다.

몇달전에도 주일미군속이 20살 난 녀성을 살해하고 시체를 숲속에 내버린 사건이 발생하여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가고있는 오끼나와현에서 미군기지에 대한 반감이 높아가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지역주민들이 범죄의 근원을 들어내려는것은 초보적인 생존의 요구이다.

일본정부가 민심의 요구에 등을 돌려대고 강권을 발동하면서까지 일본에 대한 미군주둔을 유지해보려는것이야말로 대미추종에 환장한자들의 망동이 아닐수 없다.

미국을 등에 업어야 저들의 군국주의야망을 실현할수 있다는 침략적타산이 일본정부를 주일미군기지의 파수군으로 만들었다고 할수 있다.

후텐마미공군기지의 이설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한 방송은 《오끼나와주민들의 요구조건이 실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분노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기를 원치 않고있다.》라고 전하였다.

미국이 이것을 내놓으라면 이것을 내놓고 저것을 내놓으라면 저것을 내놓아야 하는 정부에 나라를 맡긴 일본인들이 불쌍하다.

상전의 비위를 맞추고 그 가랭이에 붙어살기 위해서라면 자국민들의 생존권마저도 짓밟는 정부의 비렬한 행위에 반항이 뒤따르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본사기자 리 철 혁

세계도처에서 규탄배격받는 미국

캄보쟈수상 훈 센이 7월 31일 청년들앞에서 한 연설에서 중동을 피비린 분쟁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곳으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라고 규탄하였다.

그는 미국이 중동에서 《인권옹호》와 《민주주의》의 구실밑에 살륙적인 전쟁과 분쟁들을 조장시켰으며 그로 하여 지역나라들에서 매일 수백수천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명이 피난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러한 재난은 바로 미국의 대중동정책에 기인된다고 하면서 그는 특히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전쟁은 원유가 풍부한 이 나라를 만성적인 분쟁에 시달리게 만들었다고 단죄하였다.

* *

수리아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가 최근 미국 NBC방송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정부전복음모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지금 수리아는 테로와의 투쟁에 전력을 다하고있지만 이와 반면에 미국은 테로그루빠들을 수리아정부를 붕괴시키는데로 내몰려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 *

베네수엘라대통령 니꼴라스 마두로 모로스가 최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책동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얼마전 미국의 한 은행이 사전통보도 없이 베네수엘라은행들의 구좌들을 폐쇄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자기 나라에 대한 금융봉쇄책동으로 락인단죄하였다.

* *

이란원자력위원회 대변인이 7월 30일 국영텔레비죤방송과의 회견에서 핵합의를 리행하지 않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미국이 《인권》과 《테로문제》를 구실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계속 실시하고있으며 세계의 대규모회사들과 이란사이의 협조를 가로막으려고 책동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핵합의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얼마전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책동을 단죄하였다. 최근 미국회 하원이 이란에 대한 려객기판매를 금지시킨것과 관련하여 그는 미국정부는 이란을 반대하는 모든 제재조치들을 철회함으로써 핵합의에 따른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

로씨야국가회의 부의장이 7월 8일 미국과 나토가 로씨야국경부근에서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있는데 대해 비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저들의 군사적도구인 나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시도하는 미국의 리해관계에 부합되며 미국은 유럽동맹의 약화를 나토의 지위를 강화하는것으로써 보상하려 하고있다고 그는 단죄하였다.

* *

알제리사법상이 7월 17일 자기 나라의 인권실태를 비난한 미국의 보고서를 배격하였다.

그는 자기 나라에는 미국이 주장한것과 같은 인신매매범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보고서는 알제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것이라고 말하였다.

정부는 인신매매행위에 가담한 범죄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 *

아프리카동맹 경제, 사회, 문화리사회의 고위관리가 7월 16일 한 회견에서 수단에 대한 미국의 제재책동을 비난하였다.

그는 수단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거의 20년동안 지속되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이 나라녀성들과 청년들에게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미국의 제재로 말미암아 수단의 경제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으며 특히 인민생활문제에 많은 난관이 조성되고있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61125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